



無
寬
錄
地

74
5096
1

三
A



門 4條
5096
12



增修無冤錄諺解卷之一

檢覆

조검과 복검이라

三書中最關檢驗者熟類聚于此俾卽一篇之要旨라司民命者庶幾乎不失權度이니若例所論에參考會而驗得則自誤而誤人必矣

自	冬	無	冤	錄	諺	解	卷	一
야	권	배	명	니	검	三	삼	書
條	度	설	말	곳	驗	驗	驗	에
도	도	기	하	아	함	에	관	판
례	물	상	음	일	어	관	편	제
만	일	고	노	篇	는	제	의	호
의	티	오	는	者	자	의	호	자
빙	아	하	자	1	로	공	자	형
야	닐	야	니	條	이	로	물	연
야	며	쿠	로	도	로	은	이	록
驗	니	르	이	의	강	이	에	중
험	만	니	강	의	하	라	류	등
得	일	오	하	의	며	민	로	마
득	臨	면	의	론	김	만	모	장
면	시	거	바	하	히	만	도	검
스	의	의	로	念	念	命	도	檢



刑名之重

스르 그릇고 사를을
그르 범이 반듯하리라

檢覆摠說

刑名之重^이莫最於殺人^나獄情之初^에必先於檢
驗^나蓋事體多端^고情態萬狀^야有同謀共毆而莫
知誰是^나下手重者^며有同謀殺人而莫定誰爲初造
意者^며有甲行兇而苦主^나與乙讎嫌而妄執乙行
兇者^며有乙行兇而令在下之人^로承當者^나毫釐
之差^에謬以千里^라

檢覆摠說

刑名名명의重동함이殺살人인에셔 2장하니

업스나獄^우情정의初초에반드시檢^검驗^험함에
몬져홀며나대개事^스體^테에뒀티만고情^정態^태에
만가디형상이나하야하가디로써하야하가디
로려시되뉘이손짓기물미이호줄을아디못흐
도이시며하가디로써하야사를을죽여시되뉘
처^엄으로造^조意^의의^말이라^단호인줄을定^정당^당티
못흐도이시며甲^갑이行^행凶^흉^{사람죽이}하^야
거늘품고로주^시라^천乙^을과讎^讎슈嫌^嫌함^{연슈와}
이^단말^하야하망히乙^을을行^행凶^흉이라잡느니
도이시며乙^을이行^행凶^흉코셔在^在下^하하호사

曾參無克錄彥解

름^{命하사}이^라으로^하여^하금^바다^當당^케하^느니^도이
시^니毫^호釐^리만^치차^차함^어千^천里^리로^글러
디^느니^라

稱^寬重^囚一^多爲^檢屍^時에^司縣^官이^不行^親去^監
檢^고轉^委吏^人等^야止^憑件^作行^人의^檢到^傷損^致
命^根因^고覆^檢官^吏恐^檢驗^不同^야暗^囑初^檢人^等
야^抄錄^屍帳^야雷^同回^報本^處官^司一^又不^照覩^所
所^驗實^與不^實고^憑准^檢狀^及元^告人^指執^과捉^事
事^人疑^詞야^將涉^疑人^야非^法鍛^鍊야^須要^承服^나
本^人이^不任^勘問^야虛^行招^說야^致有^冤抑^라一^或

差互^면利害^不小^라니

稱^칭冤^冤원^원하^느重^重등^등囚^囚슈^一만^히檢^檢屍^屍시^시흐^는새
에^司縣^縣현^현이^라와^의官^官관^관이^親친^히가^검험^험을
監^監감^감하^느디^아니^코吏^吏리^리人^人等^等의^게구^구울^울녀^녀맛
저^다만^件오^作작^과과^行行^인인^인等^等의^게구^구울^울녀^녀맛
의^검험^험야^온傷^상損^손이^며致^티命^명하^느根^근
因^인실^실인^인을^의빙^빙고^覆복^檢檢^官官^吏리^리는^검
험^이디^아니^하사^저허^마만^이初^초檢^검人^인
等^等의^게척^척촉^촉야^屍屍^시帳^帳을^벗겨^다가^雷뢰
同^동말^말이^라야^回회^報보^호면^단단^말이^라

本_본處_處差_差官_官判_判司_司상서一_一도_도驗_驗함_함배_배實_實실_실함_함
며_며實_實실_실티_티아_아니_니를_를슬_슬피_피디_디아_아니_니코_코검_검험_험함_함문_문장_장과_과
다_다只_只元_元원_원告_告고_고人_人인_인의_의指_指지_지執_執집_집만말이라과_과捉_捉
작_작事_事人_人인_인사_사형_형흉_흉인_인잡_잡는_는의_의의_의심_심된_된말_말을_을憑_憑빙_빙准_准
준_준함_함야_야涉_涉섭_섭疑_疑의_의함_함사_사롬_롬의_의심_심저_저온_온을_을가_가져_져法_法법_법
아_아니_니로_로鍛_鍛단_단鍊_鍊련_련단말이라함_함야_야承_承승_승服_服복_복함_함
기_기를_를요_요구_구함_함니_니本_本本_本人_人인_인이_이勘_勘감_감問_問문_문말이라을_을
견_견디_디못_못함_함야_야헛_헛되_되이_이招_招招_招說_說설_설을_을行_行행_행함_함야_야冤_冤
원_원抑_抑억_억함_함이_이잇_잇기_기예_예닐_닐위_위는_는디_디라_라함_함나_나히_히나_나혹_혹후_후
그_그릇_릇함_함면_면利_利리_리害_害해_해말이라적_적디_디아_아니_니함_함니_니라

檢_檢屍_屍程_程式_式이_이各_各有_有期_期限_限이過_過期_期屍_屍壞_壞면_면止_止憑_憑勘_勘當_當
하_하定_定執_執致_致命_命根_根因_因나_나作_作弊_弊之_之人_人이_이窺_窺見_見官_官司_司一_一別_別無_無
關_關防_防고_고遂_遂生_生姦_姦計_計야_야遇_遇有_有人_人死_死민_민或_或欲_欲報_報仇_仇야_야或_或欲_欲
圖_圖財_財야_야便_便行_行經_經官_官야_야告_告稱_稱被_被人_人打_打死_死나_나或_或稱_稱與_與毒_毒
藥_藥身_身死_死호디經_經停_停月_月日_日야_야俟_俟屍_屍潰_潰爛_爛然_然後_後에_에陳_陳告_告면_면
差_差官_官檢_檢覆_覆에_에已_已是_是屍_屍壞_壞라_라止_止憑_憑件_件作_作行_行人_人의_의虛_虛捏_捏喝_喝
起_起야_야便_便行_行追_追問_問며_며貧_貧民_民下_下戶_戶一_一因_因權_權豪_豪苦_苦虐_虐야_야非_非命_命
而_而死_死者_者를_를苦_苦主_主一_一被_被其_其攔_攔截_截고_고官_官吏_吏因_因受_受計_計囑_囑야_야抑_抑
遏_遏不_不能_能告_告官_官이_이라_라及_及至_至事_事發_發에_에却_却以_以屍_屍壞_壞로_로爲_爲詞_詞고_고
不_不復_復檢_檢驗_驗나_나須_須要_要應_應期_期야_야依_依式_式檢_檢驗_驗라_라이_이니

檢屍屍시흐는程式식^{라 법이} 각각期의限을
 이잇거늘과흐을디내여屍시 | 尸란^{하야}시면
 다만勘當^당 터 무러 토스 ^{바 단 말 이} ^라 ^스을의빙^{하야}致^티命
 명^호根^근因^인을定^명 ^{하야}잡으니弊^페를짓는
 사^름이官^관判^판司^사 | 別^별 노^막음^업스^름을^엇보^고
 드^디여姦^간計^계를^내야^만일^사를^죽으^미이^시
 면^或혹^원슈^를잡^고자^하며^或혹^지물^을도^모코
 자^하야^문득^관가^에경^유 ^하기를^행 ^{하야}놈^의
 개^려죽^임을^넙엇^다 ^고稱^칭 ^하거나^或혹^毒 ^두
 藥^약을^주어^身신^死스^다 ^고稱^칭 ^호되^돌과^날을

죽여죽임이허여디고석기틀기드려그런後^후
 에陳^진인^인 ^고면^관원^을 ^치 ^당 ^{하야}檢^검 ^복 ^함
 애^불 ^신이^죽임이^문허^든디^라 ^다 ^만 ^件 ^오 ^작 ^작
 行^행 ^인인^의 ^허 ^되 ^이 ^죽 ^모 ^화 ^성 ^언 ^하 ^는 ^것 ^만 ^의
 行^행 ^야 ^문 ^득 ^잡 ^아 ^못 ^기 ^를 ^行 ^하 ^며 ^貧 ^민 ^민 ^이
 下^하 ^하 ^戶 ^호 | 權^권 ^豪 ^호 ^의 ^苦 ^고 ^제 ^하 ^며 ^虛 ^학 ^하
 因^인 ^{하야} ^非 ^비 ^命 ^명 ^에 ^죽 ^은 ^者 ^자 ^를 ^拷 ^고 ^主
 罪^죄 | 一 ^그 ^막 ^즈 ^르 ^를 ^넙 ^고 ^官 ^관 ^吏 ^리 | 計^계 ^케 ^囑 ^속 ^청
 然^단 ^말 ^바 ^듬 ^을 ^因 ^{하야} ^놀 ^리 ^이 ^고 ^막 ^히 ^이 ^여 ^能
 能^능 ^히 ^告 ^고 ^官 ^관 ^티 ^못 ^하 ^얏 ^다 ^가 ^밋 ^일 ^이 ^發 ^발 ^하 ^기

에니르매든득시신이문혀져심으로말을삼고
다시檢검驗驗함티아니하니모름이귀흔에應응
하야법대로檢검驗驗함흔니라

檢屍過時不發或等待上司行關或稱已承他
處公幹差遣或應牒鄰近而牒遠者或應驗而
不驗或不明定要害致死之因或定而不當
或漏泄驗狀情弊紛紜不能槩舉理宜明定
罪例通行遵守
此條本文與我國事
例相左中就其文略
改正을如

檢屍시흠을세디나도루발히티아니하야或

후上상司司의行關關을等等待티하며或후
블셔다른곳에公公幹幹으로시거보내믈바닷
노라일긋르며或후응당히이웃갓가온디牒
청문단말이라관하얌즉하거늘먼디를牒
여或후응당히검험하얌즉호디검험티아니하
며或후要요害해致티歿사호실인을분명히定
명티아니하며或후定명호디當당티아니케하
며或후검험문장을漏루泄설하야간경과폐
단이紛분紜운하니能능히일개로드지못하논
디라스리맛당히罪죄例례검시관를복히定명

호야 통통 행 호야 말미 암아 덕희 염주 호니라

此條本明文是我國事例

와相望左지홀시그글에나야가략간改기正정

호야 두물 노카

附 檢屍有定期야不容少緩나或值鄰近官司

有故而他官守宰一過去境內則本官이牒

請覆檢 이道內四鄰官이有故而 國朝故

事 이 今廢而不舉나理宜飭行라

附 檢甘屍시定형호기호이이셔잠간도지

완기를용남디못홀거시니或후鄰린近근

엇官관司스一연고잇고다른고은원 동고

은원 이境內內에디나감을만나거든本

本官관이문립호야覆복檢검을請청호는

거시 道內內四小鄰린官관이연고이시

나라곳 國朝요에네일이어늘이제廢

페호야거히티아니호니스리맛당히신티

호야行행호야압주호니라

重刑枉直이在推詳事頭나凡檢驗屍傷에衆証器

仗顯然야易於結案者도猶不免變亂情款은若

初不訟官고直待身死然後야方告며或因他疾而

死야或事涉曖昧야不願進告야屍已燒埋는正

人等。計囑縣吏야妄投詞狀야又有妄以驚以老
幼及自傷殘害로故行謀賴면人家典雇人及負債
不得則往死其族黨이需求錢物가胥吏가攬受理면官
亦貪求야從而檢驗면或以屍首發變青赤顏色로
妄作生前傷痕야改變是非야鍛鍊成獄면或放火
蹤跡이不明이或被強盜之類를吏卒이教令事
王야妄指平人가因而破家면致有拷訊而가今
後는有司이遇有人命公事면審問是否五服內
親及致가緣由야若是親屬의的有冤濫면方許
受理면若其告人이不係其親屬는或稱親戚의

私人이代告면及里正가首申聞之類及不見
死者의冤濫情節면無得理問면或潑皮有讎怨
於誣告平人야窺害人命면追問反坐면果有身
死不明者의實無親戚人等면許令鄰佑地主
或里正頭目이從實申官야依理追問면
重중호형옥의 굵으며 바름이 일초 두를 밀 위여
저세히 흠애 이시니 들릿屍사의 상쳐를檢目驗
힘흠애 여러 간증과 器과 仗당과 秤인함이 顯현然
연하야 結目 案안 罪인 이 승복하야 문안 하기쉬
은者자 라도 오히려 情정 款관을 變변 亂란하

增參無冤錄卷一

기예免면티 못훈거시온만일아이예訟송官官
판티아니코바로身身死스하기를기드린然然後
후에보야흐로告고하며或후다룬병을因인하
야죽어시며或후일이분명티아녀進진告고함
을願원티아니코시신을이의燒소하거나화장
라말。埋매하얏거늘로正正人인等등이縣縣
吏리를게교로청축하야허망히詞스狀장을더
디며또허망히놀나셔죽잇는늘은이며어린이
와늘나죽은거슨급거하야 밋스스로傷傷히와
殘殘害해하니。로써짐짓씩하야힘남음을行행

하면사름의집의던당호고공이와와
物不來幸형하야죽으면그族족黨당이錢錢
物을求구하다가잇디못하면의양마르쳐다
래여陳陳나라이전이어우루쳐잡아다스리며관
고하니

원이또호貪탐求구하야드디여檢검驗驗하며
或후屍시首슈發發變변하야프르고붙어딘
빗츠로써허망히生生前前傷傷痕痕을삼아
是是非非를고터變변하야鍛단鍊鍊하야成성
獄獄호며或후放放火火하호蹤踪跡跡이붙디못
하거나或후強강盜도만난는類류를吏리卒졸
이事스主주라고죄를마르쳐서허망히平평人

이을지목호야인호야집을破파호며拷고訊
지녀못단 호야죽음이잇기에닐위니이젠後후
 는有유司스스만일人인命명公公事스스잇거
 든五오服복안헛친속일시을호며아남파및致
 리灰스호緣연由유를상심호야무러만일이親
 친屬속이오덕실히冤원濫람홈이잇거든보야
 호로許허호야바다다스리고만일그嵩고호사
 롬이제親親屬속에미이다아넷거늘或혹親親
 戚척의私스人인이로라일크러디신호야嵩고
 호거나밋리正정 약정 과主주首首 동리소
위라 의

申신聞문 말고 호라단호는類류와밋死스者자의冤
 원濫람호情정節절을보다못호엇거든 혹당고
이라도분명티 다스려못디말고或혹潑발皮피
아니호일이라 비무력 비라 讎슈怨원이이서平평人인을誣무嵩고
 호야人인命명을害해호려엇거든追추問문호
 야反반坐좌 좌법에좌 죄를도로업스사름을거죽고호면그
 라호고과연身身死스호기를不블明명히호者
 자스잇고實실로親親戚척인人인等등이업거
 든許허호야鄰린佑우 이웃사 럼이라와地디主주 죽은
 재라와或혹里리正정과頭두 목 류 존위 라이실상

대로판스에신문호게호야법리대로잡혀못게
하라

檢驗一事一若有大段疑難면須當廣布耳目以合
之라庶幾無誤니如鬪毆限内身死痕損이不明
若有病色호曾使醫人師巫로救治之類則多因
病患死若不訪問則不知也라然亦不可專任
一人호仍宜善使之니不然면適足自誤다 니

檢檢驗한일事스一만일큰疑의難난이이시
면모름이맛당히耳目을너비퍼벼합합려
사름의말을
아춤이라
호야사거의그릇함이업소리니만

일빠흐호야려고호 明律를辜고限法법에

타傷상호면二이十日일이오刃인物물이나
湯탕火화호로傷상호오면三삼十日일이오
折跌탈肢지체와破과骨골과墮라胎태이은折
介足족이머他타物물을못디말고다五오十指

내일내내죽어시디痕손이분명리아
니코만일病병色색이잇고일즉醫의人인과쇼

경무당으로호여곰救구호야치료호던類류는
病病患환으로因인호야죽음이만호니만일訪

방問문단말이라호디아니면모를떠라그러나
도호호가히호사름만전혀맛디디못호거시오
仍仍호야맛당이잘부릴떠니그러티못호면맛

티스스로 그릇될 만이니라

凡檢覆後에 體訪得行凶人事因_야不可現之公文

者_디어 面白上官_야使知曲折_면이 庶易鞫勘_라이니

를 잇檢 體訪_후후에 行凶_인인 의 일근

인을 體_테訪_방 스던을 자라_야可_가히 公_공文_문

문에 드러 내디 못_하거시어 든 上_상官_관의 公_공文_문

츠로 슬와 曲_곡折_절을 알게_하면 公_공文_문의 公_공文_문야

감단_하기 쉬우니라

凡檢屍不過條例所錄_나이 然勒殺_이 類乎自縊_고溺

死_一類乎投水_고 鬪毆_야有_限內致命而實因病患

身_身死_死 人力女使_一 因被捶撻_야 在主家自害自縊_{之類} 理有萬端_나 並爲疑難_라 臨時審察_고 切勿_{輕易}

를 잇檢 體訪_屍시 一 條_五例_레에 公_공文_문에 디나

디 아니_하나 그러나 勒_勒殺_살 죽인 거시라야 自

不_不縊_縊 야스스로 목과 溺_溺 죽인 거시라야 自

死_死 一 投_投水_水 스스로와 公_공文_문에 디나

안히 죽어시되 實_實은 病_病患_患을 因_因인_인야 죽

으미 이시며 人_人力_力 종놈이 며 女_女使_使 종년

一 捶_捶撻_撻 이러한 말 公_공文_문을 因_因인_인야 主_主家_家가

에이셔스스로害해하며스스로縊익호類류
정리萬단端단이나혹이이시니다疑의難出이
되노니라臨時시하야不세히슬피고부디輕
경易이히말게하라

凡檢驗屍首에指定作被打後에服毒或自縊或投
水身歿之類는最須見得親切이라方可如此定執
라이니世上에多有打歿人後에以藥灌入口中고誣
以自服毒者며亦有歿後에用繩弔起고假作生前
自縊者며亦有歿後에推在水中假作自投水者나
一或差互면利害不小今須仔細點檢야有可憑

實跡사니라方可辨明이니

물잇屍시首슈를檢驗함에指지定명하야
被피打타호後후에毒毒을먹었다거나或후自
不縊익호였다거나或후投투水水身身歿스를
삼는類류는장모름이보기를親切切결히하
야사보야호로可가히이리定명執집할띠니라
世上상에만히사름을티죽인後후에藥약으
로써口中中等에부어녀코스스로服복毒毒함
으로무고호는者자도이시며또호죽은後호에
노호로써미야들고거죽生生前前自自不縊익을

삼는者도이시며또혹죽은後후에 밀려 물에
두고거즈스스로投투水슈흙을삼는者자도이
시니흐나히나或혹어긋나면利리害해적디아
닌디라이제모름이仔不細세히點점檢검하야
可가히빙고홀實실跡적이이셔사보야흐로可
가히큰히야부힐디니라

凡體問에必先喚集鄰證야反覆審問야歸一捧招
或見聞이參差티어令各取招고或併責行兇人
供辭야一併粘申上司호若憑吏卒開口면卽是私
意니須多方體訪야務令參會歸一고不可憑一二

人口說야便以爲信이及備三兩紙供辭야謂可塞
責이况其中不識字者는招辭一多出吏手야鄰證
이或與凶身로是親故及暗受買囑符合야不可
不察야

문잇體테問문말이라단 흙애반드시몬져鄰린
證증절린피간을불니모화反世覆복하야不세
히무러歸귀일여말이하게도스름바드디
或혹보며듯는거시어긋나거든하여금각각取
취招표하고或혹行행凶흉人인의供公辭스름
검하야취척하야흙씩上상司스에렴련하야신

보호디만일吏리卒졸의開기口구함만의빙호
 면곳이느스스뜻이니모름이여러가디로體테
 訪방호야호여곰參참會회서르섯거보歸귀
 일키를힘쓰고可가히一일二이人인의口구說
 설판의빙호야문득베밧음을삼으켜밧삼兩
 냥紙지供공辭스름マ초아可가히塞석責지호
 리라호디못홀더라호물며그가온대글주모르
 는者자느招호辭스一만히아전의손에나며鄰
 린證증이或후凶흉身身살인원과이親친故고
 一어나밧マ만이買리囑추지물로청호을밧고

부동호야습합호느니可가히슬피디아니티못
 호거시니라

凡檢驗承牒之後 不可接見在廷官員秀才術人
 僧道야호以防姦欺라니

를잇檢검驗험호음애문첩을바든後후에可가히
 갓가이잇느원고원척의官官員員원과秀秀才
 지선비와術술人人인과僧僧道道도등과
 라를接接見見견티말아배간사와소기름막을며
 니라

凡檢驗官 遇經宿處 須問其家 與凶身及

增修無冤錄金諺角一

十一

苦主로 親戚是否고하 方可安歇야以別嫌疑라

를 잇檢査驗査官관이經營宿속을 恨을 만나거

든모름이그집이凶을 身신과잇 苦고로 主로 主로 主로

브러親친戚척이며아니를못고보야흐로可가

히어므러쉬여비 嫌을 疑의를분별케하라

補 檢狀을 一一親手填註고 毋得假手吏胥야 以備

推勘고 或有不得姓名人屍首야 其親屬이追後呈

告者는 須驗狀証辨이至若獄囚軍人無主人도

驗狀을 尤須詳慎이不可稍有疎略라이니

口 檢査狀장을一일一일히親친히손으로메워

註주 돌고吏吏의胥胥의게손을비러비推推查查勘勘감

추문말야마감을준비디말고或후姓姓名名명을

엇디못하는사사의屍屍首首슈이셔그親親친屬

속이追追查查後後후야문문告告고는者者자는모름

이驗驗査狀장으로증기하야곧곧힐디니獄獄우囚囚슈

와軍軍人人인마름님자업스스人人인에니르러

도驗驗査狀장을켜옥부디부디不不세히삼갈게시오可

가히저기도疎疎소略略략함이잇디못못할디니라

補 若昏夜被殺야見証無人及屍無下落者는 只宜

密訪이不可妄意猜疑야鍛鍊成獄라이니

增修無冤錄卷一

十一

요 切절호干止證 證人인 이 바로공소 할가
저허짐죽음 초아 숨게호고스스로親친密
밀호사룸으로버거죽거슬주합호야소거
증참함이잇는니 可가히아디아니티 勿호
며니라

應用法物

酒○糟○醋○初春與冬月은 煮醋炒糟 令熱
라○仲春殘秋는 宜微熱라이니 ○夏秋間은 糟醋
를 微熱면이 以天氣炎熱라이 恐傷皮肉라이니 ○秋將
深則用熱니이 左右手肋相去三四尺에 加火燻라호

以氣候差涼故也

라니 補檢驗時에 將新白布或
白紙에 投入酒醋에 試看

不有藥라 則布紙變色라니 ○鹽○椒○蔥○梅實

○甘草 或受獨時以 茜草로 投醋內에 塗傷處에
痕皆不見라니 以甘草水로 洗之면 卽見

○土盆○槌○湯水器○炭○銀釵 假銀釵면

纔觸穢氣에 其色이 卽變라 難以辨明中毒에 遂
致寃枉라 卽記封收에 卽天銀不雜銅鈇者에 卽監臨

成造時에 鑿記封收에 卽天銀不雜銅鈇者에 卽監臨
於檢屍에 卽餘詳中毒門에 卽白飯○雞飯 詳見

中毒門에 卽白紙○灰○盆器○官尺 卽黃鍾尺에
卽細繩○灰○盆器○官尺 卽黃鍾尺에 卽量傷處에

以周尺에 卽准則周尺
長이 六寸六釐에 卽

응당쓰는 法物들이라

去其處若干

頻屍四至高低遠近去其處若干在溪澗中

上去至山脚或岸幾許係何人地甚地名

屍傍應有器仗物色仔細聲說若屍在水中

或窄暗處難以定驗者許移於近便處

開說移動緣由

를잇驗屍시흠애모름이몬져血屬속과및

隣린保보의게다짐바다本本시신일시올흐며

을티아니흠을알오뒤或후屍시首슈오라야

胖방脹양이라고석어허여터알음이진덕

디못흐기든모름이몬져아이예므슴衣의服복

色의樣양물식과제을넘어시며므슴記의號호

着다標표이심과및身신上상에므슴허물

알을곳이잇고다터무러分分明명히문장에

다짐흐게야뜻참애비로소열고검험호뒤屍

시首슈或후집속에싸바닥이어나或후床상

上상에어나或후집압히어나뒤히하늘되는地

디上상에잇거나머리南남이오발이北북이며

머리東동이오발이西서며仰앙하며合합호

며側측호야仰앙은반드시누은거시오合합은

라누어심을屍시旁방屍시帳창벗티니신노

曾參無克錄卷一

二十一

有傷幾處_{디호}皮破血出_{디어}或皮微損血不出_{디어}
 나或青赤色_{디어}或腫_{디어}或浮皮破_{디어}或骨損
 與不損_{디호}量得長濶深淺圍圓青赤紫黑黯腫高分
 寸_{디호}或係手足_{디어}或他物_{디어}或磕擦隱墊_{디호}定
 執致命之因_{디호}○_補生前_{디어}有缺折肢體及偃僂拳
 跛禿頭青紫黑紅色痣肉瘤諸般疾狀_{디호}雕青灸癍
 疥癬癰瘡_{디호}開寫新舊_{디어}有無膿血_{디호}○更有頂
 心頭髮內_{디어}有火燒釘子_{디어}眼睛臍孔前後陰_{디어}有
 釘無釘_{디호}齒舌耳鼻內_{디어}或手足指甲中_{디어}有簽無
 簽_{디호}

미리로부터檢_{디호}감_{디호}야시작_{디호}홀시나히언마나흠
 을혜아리고크크며적음과面_{디호}體_{디호}에肉_{디호}色
 석이엇더흠과脂_{디호}지肉_{디호}유_{디호}肌_{디호}기肉_{디호}이꺼져시며다
 못꺼디디아니흠과두손과발_{디호}이퍼이여고닷거
 나或혹_{디호}좁_{디호}쥐_{디호}며굽음과_{디호}손_{디호}은_{디호}좁_{디호}쥐_{디호}고_{디호}다_{디호}리_{디호}와_{디호}상_{디호}도
 와머리터럭이도드_{디호}며_{디호}죽_{디호}엇_{디호}거나_{디호}或_{디호}혹_{디호}흐터디
 며푸러짐을혜아리며_{디호}상_{디호}도_{디호}를_{디호}푸_{디호}러_{디호}터_{디호}럭_{디호}기_{디호}릭_{디호}언
 마되음을자히고두눈을혀혀여러두눈_{디호}망_{디호}을_{디호}을
 보고만일_{디호}傷_{디호}상_{디호}處_{디호}쳐_{디호}잇_{디호}거_{디호}든_{디호}아_{디호}모_{디호}곳_{디호}에_{디호}傷_{디호}상_{디호}흠
 이몇곳이이시디갓티싸여디고피_{디호}낫_{디호}거나_{디호}或_{디호}혹

갓티微미히상호야피아나갓거나或후프르며
 북은빛치어나或후부엇거나或후들든갓치사
 여덧거나或후빠상호얏거나다못상리아덧다
 ㄹ르쳐定명호고기리와너비와기름엇틈과에
 음과프르며북으며검북으며검으며검히검으
 며부는거식분寸촌을자히되或후手슈足족
 이어나或후他타物물이어나或후磕합擦찰은
 로다될녀거나隱은塾은아래잇는거기우호
 상호미라거나隱은塾은아래잇는거기우호
 디미이엇다호야致티命명호근인을定명호야
 잡으라○生前전에肢지體테이즈러더시

여부러담이 잇거나밋급사등이어나조막손이
 어나젓독발이어나머리되엇거나프르며검북
 으며검으며북은빛치사마피와솔후이어나여
 러가지병형상과雕도靑청솔희사기고프른이
볼드린거시라
 며뚝질허물이어나옴이며버즘이며큰종괴며
 보들웃시며창질을새거시며오란거시며고름
 피이시며업음을버려쓰라○다시頂頂心심과
 머리터럭속에불티은쇠못시이심과불에달화
박아뻗속
에너흐면피나다아나코호호 눈망울이며빛곰
흔손도봐다아나호호나라 이며前前後後陰음압뒤음에
 鈎釘이이시며鈎

병이 업스며 나와 혀와 귀와 코속과 혹은 손톱발톱가 온대 煞사침기기사사라 이이시며 煞사침이 업스믈
보라

檢婦人에 不可避羞라니 ○檢婦人에 無傷損處에
은 須看陰門라 恐自此入刀於腹內니 離皮淺則臍
上下에 微有血沁고 深則無라니 ○補婦人이 因產
門受傷身死 皮肉消化者는 其頤門骨并架骨이
俱紫赤色라니 ○驗處女屍에 令收生婆로 剪去中
指甲고 用綿包紮고 眼同屍親과 并隣婦二三人야
令產婆로 將綿紮指頭야 於陰戶內에 試야 有黯血

면이 卽是處女의 無면 卽非라니 ○補檢小兒도 亦如檢
式라니

婦人인 을 檢검 息숨 에 可가 히 舒티 囉피 티 못 흘
며 니 라 ○ 婦人인 을 檢검 息숨 에 傷상 損손 息숨 곳
이 업 거 든 모 롬 이 陰음 門문 을 보 라 저 권 대 이 리
로 부 러 칼 흘 腹 內 內 々 에 드 러 보 내 여 실 가 흡 이
니 갖 히 셔 상 게 엇 트 면 빛 곱 상 下 하 에 微 미 히
피 딴 거 시 잇 고 곱 프 면 업 스 니 라 이 갖 가 과 가 주 스
것 호 로 비 초 여 락 라 ○ 婦人 인 이 產 山 門 문
고 락 면 업 단 말 이 라 ○ 婦人 인 이 產 山 門 문
에 受 兪 傷 上 息 을 因 인 々 야 身 身 死 스 々 야 갖 과

屍시의형상과四소까지 돌아오르 벗겨 기록하
야只춤에보야호로可가히머여드러平평穩은
하고복고조흔地디上상에내고門문扇扇_{문씩}
이나샷자리나돛티나베슬부터셔라_{편신아래}
라 존흙과흙을뭇티디아니케하라○몬져몸에
잇는衣의服복을벗기고頭두上상으로부터신
과보션들셔디니르히났티셔라가며벗겨귀
록호디몸에셔로인行행李니_{행인의가딘} 잇거
든셔호일흙파가디수롤초귀록하라○아디
乾_법간_물驗_물험_업시_시을호번하라○버거湯

탕水슈와肥비皂조_{皂조}로베셔와기름을베

서가시고또물노베셔터베셔가시라○버거白

帛紙지롤써두터이퍼슬부리게하라○沿연屍

시_{신상하로말}야_{암단말이라}檢_검홀시衣의物물을벗

겨다흙에리리正정과主주首슈의개다짐밧고

맛더거두어차지하야覆복檢_검을기느리게호

디빙쇼하야쓰일디잇는衣의物물이어든멧가

딘줄을버리고_{반말이라}빙쇼하야쓰일디업

스衣의物물이라도버리라○보야호로可가히

兩_원양爭_원쟁人_척인_{이라}과_원및_원親_원친屬_원속과_원干_원간

增補無窮錄卷一

二十八

連連호사름드름압령호야보아알되매각각格

其日목驗함狀장_식파호문장에_격에일흠두이라

就驗處_야以薦席_로視殭屍首_고週圍_에用灰印記

_고跡_跡隨_隨印_印覆_覆盆_盆以防_以奸_奸偽_偽狀_狀責_責里_里正_正隣_隣人_人看守

狀_야附_附案_案

驗_驗處_處처_처에_에나_나아가_{아가}薦_薦전_전席_席석_석으로_{으로}베_베屍_屍시_시首_首슈

를_를싸_싸며_며살_살고_고에_에엇_엇치_치灰_灰회_회를_를써_써印_印인_인터_터보_보람_람호_호고

_고屍_屍시_시四_四面_面면_면에_에지_지를_를피_피고_고印_印인_인跡_跡적_적을_을만_만히

막_막으_으라_라里_里리_리正_正정_정과_과隣_隣린_린人_人인_인의_의看_看守_守슈_슈호_호는

문_문장_장을_을다_다짐_짐바_바다_다문_문안_안에_에부_부리_리라

補 四縫屍首之並係要害虛怯致命處 尤宜仔細

親檢頂心偏左偏右顙門頭顙額角兩太陽穴兩

耳竅咽喉胸膈兩乳心坎肚腹兩脇臍肚玉莖腎囊

凡傷下部之人其痕皆現於上時男子之傷

是現於上下牙根裏骨能傷左則居右時傷右則居

左時傷正則居中之女子之傷亦然又現於上

牙齒脫落時小腹 頷頰食氣桑兩腋臑兩肋腦後兩

耳根脊背膂兩後肋兩後脇腰眼_야若_若一處_一有

痕損_은이_이並_並令_令作_作作_作로_로指_指定_定喝_喝起_起라_라重_重他_他歇_歇處_處도_도傷

此_此一_一速_速死_死之處_處은_은腦_腦後_後頭_頭顙_顙胸_胸膈_膈脊_脊背_背脇_脇肋_肋은_은此_此一

增補無窮錄卷一

二十九

分寸손이 펴크고毒毒氣가 배혀 毒毒氣가時시
日일노성함이
 라안흐로向向흐면可가히혜아리건대흐두날
 後후에나죽을꺼시오만일分分寸손이深심重
 등흐고毒毒氣가紫々黑후흐야卽즉時시안흐
 向向向向면可가히곳애죽을떠니라○ ○ 들릿
 命命門門은骨骨골이マ장虛허怯怯하디屬속하야
 손으로버티면可가히죽시죽느니命命門門은
 骨骨골左左右右兩兩傍傍穴穴혈 命命門門은骨骨골로骨骨골은尾尾미
軀軀體體로骨骨골로부터거스
리히이늘골저뺨마디오兩兩傍傍相相去去各各
各一各一寸寸五五分分에小小少少穴穴혈이이서나일
肅肅은腎腎신라에붙은힘줄이マ느실マ튼거시이셔
脬脬유라

두内內腎腎신에通통함을因인하얀느니라두드
 러긔쳐디면 命命門門은筋筋근이인쳐디단말이라紅紅홍즉시죽으
디밧게는痕痕跡跡이엮느니만일命命門門은處
처를拍박着着하야身身身身死死하다숨고稱稱칭하
리잇거든다만命命門門은骨骨골을檢檢檢檢하야
紫々赤赤하者者자ㅣ곳이니라

補 驗傷 須用手指按其青紅處 眞傷處 堅

硬硬指一起 仍然青紅 將水滴上 水珠不散
 開如係發變處 將指一點起 卽時白色 將
 水滴上 水不停住 死發變是人腹內之血不能
死發變是人腹內之血不能

라시므로 배주 주를 삼을 때 니 瘡음의 형상 되음이
 요지컨대 다 갖가 음으로 부러 멀며 김흠으로 부
 터 점점 잇트며 濃롱 빛치릿단 흠으로 부러 淡담
 빛치릿단 호디 밋치 盡진 호야 가는 곳이 또 다 구
 름과 안개 도 못되며 빛발도 못되며 靉구름의 잇
 는 듯 업는 듯 흠 마르야 가히 브라 불듯 호디 가
 가히 나아가디 못호며 가변도 분명티아나 칸말
 이 급고 潤윤 호고 淡담 宕宕 니란 말이 리아 호야
 요지컨대 다 自然 호기 운의 날 원배라 故고
 로 그 밋치 잉할 호니 이 는 상 쳐 룬 김 흠 호는 綱

강령이라 만일 북은 거스스스로 북을 만호고
 김북은 거스스스로 김북을 만호야 杵板 판 벚
 형상이라 호야 호곳에 답배 혀 피미 티인 발이 전
 혀 업스면 거 죽지 은 거 시니라

凡檢爭鬪致死 에 雖二主 一 分明而屍上 에 並無痕
 損 면 何以定要害致命處 고 此必是被傷人 이 舊有
 宿患氣疾 나 或爭鬪前 에 飲酒致醉 라 至爭鬪時
 有所觸犯 야 氣絕而死也 니 如此者 는 多是腎子
 或一箇 나 或兩箇 一 縮上不見 나 須用温醋湯
 或蘸軟衣服 나 或綿絮之類 야 一飯久 나 令

皮多白고不損處는却有青黑야暑時에 癢則皮

傷處에 凝血生氣故也若不見的의 確痕若避

臭穢야據見在檢驗過면往往誤事라稍有疑處야

浮皮破損면須令剥去라如有損傷면底下에血

癢의分明오更有暑月九竅內에未有蛆出오却於

太陽穴髮際兩脇腹間에先有蛆出면是는彼中有

損니宜仔細看라

를잇暑月월에湯湯水슈와酒쥬醋조를써그

屍시의우희답흐면손상호곳은들뜬갓치만히

희고손상티아닌곳은문득드르고검은미이셔

暑時에 瘡處에 疥어 疔이 生싱氣기

변動동호야프르고검이디는變的의疔確疔確호

흔적을보디못호는니만일臭취穢에를避피호

야보는것만빙거호야숨은것만익거호단말이

라檢검驗험호야디면往왕往왕일을그릇

틸띠라저기의심된곳이이셔들뜬갓치破파損

손호얏거든모름이호여곰벗거버리라浮부皮

기란말 만일損손傷상이이시면밋바닥에벗기

래血혈癢음이分明명명홀거시오도暑서月월

에九구竅교안히耳이目목口구鼻비와水蛆취

귀라 나미 잇디 아니코든듯 태태陽穴혈과髮
발際제와兩旁脇합과腹背間간애몬져蛆져나
미이시면이느터가온대손상흐거시이심이니
맛당히仔々細細히볼더니라

人身에舊痕者多如幼時跌撲과平日爭
毆及杖痕瘡癥은雖久平復이其痕이不滅이色跡
淺黑이至死猶著나蓋其血이旣凝이終身不
能如故也但周匝無餘暈고按之虛平고視之色黯
其骨肉이皆與新毆傷痕로有辨라니○凡死人
項後背上兩肋後腰眼內兩臀上兩腿後兩脚脛兩

脚肚子上下에微赤色이驗是本人身死後에一
向仰卧停泊이血脉이墜下이致有此微赤色也即
不是別致他故身死라

사람의몸에넋허물이잇느니만흐니어린제
업더더부디이즌디와平平日일에빠화티며밋
당쳐흔적과창쳐허물又튼거슨미득平復복
흐연디오라나그흔적이업서디다아니호디빛
과자최엇트며검어죽기에너르히오히려나타
나느니대개그피이미어리여더終身신토록
能능히네스디못호디다만에엇도래에나몬暈

云이입고늘은머虛허平평
 高고봄에빛치어두어그뼈와슬히다새로터셔
 傷상흐흔적과분변이잇느니라○글잇死人
 인의項항後후와背背上상과兩旁脇脇後후와
 腰요眼안內內와兩旁臂上上상과兩旁腿腿後後
 흐와兩旁臍臍과兩旁脚脚과肚肚子子上上
 下하에微미호붉은빛치이시면驗驗함애이느
 本本人인이죽은後후에호름치반드시누어
 停停泊박하노히어다하야血혈脉脉이처더느려
 이런微미赤적色色이잇기에닐위미오곳이別

凡行凶器仗이拳手磚石杵棒이或金刃竹篦之
 類를見在者는比對傷處에定驗有無相同고闊說
 名件고量得大小長短丈尺寸分寸고封記發去라以
 圖本에申上司於器仗에封而着標以○凡行凶器
 置於如上司使之起送則發送라○凡行凶器
 仗을索之少緩則奸囚之家藏匿移易라粧成疑
 獄中可以免死니干繫甚重라先當急急收索이
刑殺人凶刀를日久難辨되須用炭
燒紅頭以高醋洗之라血跡自見라
 글잇行凶호器고仗당이拳권手수一며磚
 石석磚돌이라杵저杖고公공棒방이어나或
 三十一

후금금刃인이며竹筴箸침의類 류를見현在지
 호거스傷상處처에다혀마초아서르又트미이
 시며업슴을定명驗힘호고名명件件이더몇가
 이라말을버려닐으고大대小小長長短短丈丈
 尺척分分寸寸촌을자히고封봉호고보람호야發
 발去거호라이제호그린本本으로베上上
 보람호야베두엇다가만일上上상司司
 에서起起의送송호라호면보내느니라○물잇行
 行凶흉호器器仗仗을차기를져기緩緩히호면
 奸奸囚囚슈죄사호의집이呂呂초며밧고아疑의獄
 獄을우며문드라可가히써죽기를免면호리니

干干繫繫甚甚심히重重호디라몬져맛당히急
 急急히거두며太太졸며니라○殺살人인호
 殺살人인호

고신변기어렵기든모름이엇블노베말와북게호
 急급히거두며太太졸며니라○殺살人인호

洗濯法 如法用糟醋야擁罨屍首고仍以灰人衣服

로盡蓋고用煮醋酒澆淋고又以薦席로罨一時久

기라候屍體透軟야即去罨物고以水衝去糟醋고

方驗디母得信行人說야只將酒醋潑過라痕損이

不出라이니○如法洗濯後에猶未分明○人身이本

赤黑色면이灰後變動야作青靑色나其痕未見有

可疑處트어先將水灑濕고後將蔥白야拍碎塗痕

處_고以醋_로蘸紙蓋上_이候一時久除去_고以水
 洗_면其痕_이卽見_니○若傷損痕跡_이未甚分明
 再用醋槽攤_아良久_에去槽_고以水衝洗
 於露天處_에以新油絹_이或明油雨傘_로覆蓋
 欲見處_고迎日隔傘看_면痕_이卽現_니若陰雨_에
 以熟炭_로隔照_라○或更隱難見_면以白梅搗
 爛_아攤在欲見之處_고再攤看_면猶未快見_면
 再以白梅取肉_아加蔥椒鹽糟_아一處研拍作餅子
 火上煨令熱_아烙損處_에先用紙襯之_면卽見_니
 ○冬雪寒凜_에屍首_이僵凍_면糟醋_로雖極熱_고

衣被_로重疊攤_아亦不得屍體透軟_니當燒
 坑_아置屍於內_고仍用衣被覆蓋_고再用熱醋淋遍
 坑兩邊相去二三尺_에復以火烘_아約透去火_고
 移屍出驗_라○昔有二人_이鬪毆_니俄頃_에一人
 什地氣絕_고見證_이分明_라及驗屍_에無痕_라檢
 官_이甚撓_니時方寒_라忽思得計_아遂令掘一坑
 深二尺餘_로依屍長短_고以柴燒熱得所_고以醋
 沃之_고置屍坑內_고以衣物覆之_라良久_에覺屍溫
 出屍_아以酒醋潑紙貼附_니痕傷_이遂出_라
 吹_기고_덥는_법이_라如_여法_법히_糟조와_醋조

흐얏다가 마장오라 매糟 조를 업시 코물노 버시
터 벗고 하느느 되느디 셔새로 기름틸흔비단이나
或 후북게머론雨 우傘산으로 버보고 저흐느곳
에 마리우고 햇빛마 조우산을 隔 박흐고 보면 혼
적이 곳봐느니 만일陰 음雨 우흐거든 솟불노 버
隔 박흐야 비취라 ○或 후다시 은회흐야 보기에
렵거든 白 백梅 비로 버셔 허죽닉여 보고 저흐느
곳에 퍼고다시 擁 옹 罨 엄흐야 보디 오히려 快 쾌
히 보디 아니거든다시 白 백梅 비로 버 肉 육을 取
취흐야 蔥 총과 椒 초와 鹽 염과 糟 조를 너허흐디

곧 아썩느려 석을 민드라 불우희구어 덥게흐야
상손호곳에 놀너디 이디 몬저 조히로 버부디티
면 상처우희몬저 조히로 덥고그 곳봐느니라 ○
우희미우을부터란말이라 冬 동 雪 설 寒 한 凜 름 흐제 屍 시 首 슈 僵 강 凍 동
벗터이러 심이라 흐야 시면 糟 조 醋 조 糶 비록 極 극히 덥
게흐고 衣 의 被 피 료 重 중 疊疊 히 擁 옹 罨 엄흐야
도 쓰흐 屍 시 體 테 스 木 부드럽디 못흐느니 맛당
히곳에 불딜너 屍 시 료 안히 하곳안 노코 仍 仍 흐야
衣 의 被 피 로 버덥고다시 더운 초로 버적셔 두루
가게흐고 兩 양 邊 변 相 상 去 거 二 이 三 삼 尺 척

에다시불노배싸야스 못출만하야든불을치우
고屍시롤음더내여김험하라○네두사름이빠
화티다가적근덧애호사름이싸히업더져氣기
絶絶하고본증인이분분명명호되밋屍시롤驗
험험애상흔이업느니라檢官官관이甚심히요
란하더니싸보야호로치운디라홀연이게표를
싱각하야드되여흔곳을꼭이되김희느니이尺
척남쪽고시테기리대로하고장작으로배불덜
너더여알맛게하고초로배적시고屍시롤곳안
히드려노코衣의物물로배덤헛다가마장오라

미시테더위딘줄이알리든屍시롤내야酒주醋
조로배조히에싸려부티니痕흔傷상이드되여
나니라

四時變動 春三月은屍經兩三日이變動야口鼻

肚皮兩脇胸前肉色이微靑若經十日以來則鼻
耳內에多有惡汁流出고肚皮腫脹나此는卽肥
大之人오若是久患로形體瘦弱之人則經半月以
後시라方有如此變動라○夏三月은屍經一
二日이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야肉色이變動고
經三日則口鼻內에多有汁流蟲蛆고遍身이腫脹

口唇이 翻고 皮膚이 脫爛고 胞胗이 起고 經四五
 日則頭髮이 脫落라 一니 ○秋三月은 屍一 經兩三日
면 亦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이 肉色이 變動고 四
 五日則鼻口內에 多汁流고 蟲蛆一 出고 遍身이 胖
 脹고 口唇이 翻고 胞胗이 起고 經六七日면 髮始脫
 落라 一니 ○冬三月은 屍一 經四五日면 身體肉色
 黃緊微變고 經半月以後則先從面上口鼻兩脇胸
 前이 變動고 若安在濕地에 用薦席裹瘞면 其屍猝
 難變動니 更審月頭月尾에 按春秋節氣에 定之라
 ○盛熱은 屍首一 經一日면 卽皮肉이 變動고 作青

黯色고 已有氣息고 經三四日면 皮肉이 漸壞고 屍
 脹고 蛆出고 口鼻이 流惡汁고 頭髮이 漸落라 一니 ○
 盛寒은 五日에 如盛熱一日時에 半月에 如夏熱三
 五日時라 一니 ○春秋은 氣候一 平和야 二三日에 可比
 夏一日에 八九日에 可比夏三四日에 然니 人有肥
 瘦니 肥少者은 易壞고 瘦老者은 難壞며 又南北은
 氣候一 不同고 山中은 寒暄이 陡頓不常니 更在臨
 時通變審察라 一니
 四小時이 變變動동고 息이라 春춘三삼月월은 屍
 시一兩兩三삼日일이 디나면 變變動동고 야口

구鼻비와肚두피피와兩脇과胸膺前전슬
 빗치저기프르고만일十日일이디나배오면
 鼻비耳이안히만히惡악汁즙이이셔흘너나고
 肚두皮피胖방脹양_{허미녀부양}허_{니이느곳肥}
 비大대호사름이오만일이오란병에形體體
 瘦수弱약호사름이면半月월디난以以後후
 에사보야호로이又티變變動동_음이잇느니라
 ○夏하三삼月월은屍시——일二이日일이디
 나면몬져面면上상과肚두皮피와兩脇脇과
 胸膺前전으로조차슬빗치變動變動_음호고三삼

日일이디나면口구鼻비안히만히汁즙이흐르
 며蟲충蛆져_{이귀탁}——잇고遍遍身身이胖방脹양
 호고口구唇슈이두티이고갓과슬히버서허여
 디고炮포胗진_{기치궤}이닐고四々五오日
 일이디나면머리_{기치궤}력이버서셔러드느니라○
 秋추三삼月월은屍시——兩兩脇脇三삼日일이디나
 면또호몬져面면上상과肚두皮피와兩脇脇과
 胸膺前전으로조차슬빗치變動變動_음호고四
 々五오日일이면鼻비口구안히만히汁즙이흐
 르고蟲충蛆져——나고_{만키느녀}遍遍身身이

胖_방脹_양항고口_구唇_순이뒤리이고_고脛_포脛_진
 이닐고六_륙七_칠日_일이디나면머리_러럭이비
 로소脫_탈랄落_락항느니라○冬_동三_삼月_월은屍
 시一四_소五_오日_일이디나면身_신體_테슬_빛치
 누르며緊_긴항야_야절_아이_적이_적저기變_변轉_환항고半_반반
 月_월을디난以_이後_후면_면저_저面_면上_상과口_구
 鼻_비와兩_양脇_협과胸_흉前_전으로_로조_조차變_변轉_환動_동
 동호되만일濕_습습地_지에_에노_노히여_여잇_잇거나薦_薦천_천席_席
 석으로_로바_바무_무더_더시_시면_면그_그屍_시를_를연_연히_히變_변轉_환動_동키
 어려_어우_우니_니 습_습디_디는_는차_차고_고 두_두터_터시_시면_면풍_풍일_일을_을피_피고_고쳐_쳐
항는고로변동키어려움이라

月_월頭_두두_두一_여月_월尾_미
초성파금음은치우며
담기_기못_못함이라
 를_를슬_슬피_피며_며春_춘秋_추節_절氣_기를_를定_정항_항때
 니리○盛_성熱_열일_일은_은屍_시首_슈一_일日_일일_일곳_곳디
 나면_면갓_갓과_과슬_슬히_히變_변轉_환動_동항_항야_야靑_청黯_암色_색색_색이
 되고_고볼_볼셔_셔氣_기息_식시_시기_기운_운파_파이_이잇_잇고_고三_삼四_소日_일
 일_일이_이디_디나_나면_면갓_갓과_과슬_슬히_히점_점문_문허_허디_디고_고 말_말이_이라_라屍_屍
 시一_一張_장항_항고_고저_저충_충이_이나_나고_고口_구鼻_비에_에惡_악汗_한
 즙_즙이_이흐_흐르_르고_고頭_두髮_발이_이점_점점_점셔_셔러_러디_디느_느니라○
 盛_성寒_한은_은五_오日_일이_이盛_성熱_열일_일一_일日_일일_일새
 又_又고_고半_반月_월이_이녀_녀름_름三_삼五_오日_일일_일새_새又_又트_트니

라○春춘秋추는氣기候후—平평和화하야二
 이삼日일이可가히너름—일日일에비비흐
 거시오八팔九구日일이可가히너름三삼四사
 日일에비비흐더나그러나사름이슬디며이외
 니이시니슬디고저문者者는상하기쉽고여외
 고늘은者者는상하기어려우며소南남과北북
 은氣기候후—又디이니하고山山中동은차며
 덩기陡두頓돈 말기라단 하야덜덜디아니하니
 다시臨림時시하야通통變변하야숨힘에잇는
 니라

白僵乾瘁屍

先鋪炭火_{디호}約與屍長潤_고上鋪薄布_호
 可與炭等_호以水_로噴微濕_호卧屍於上_호仍以_호
 布_로覆蓋頭面肢體_에訖_에再用炭火鋪擁令遍_호再
 以布覆之_고復用水遍灑一時久_면其屍—體肉_이
 必軟起_호方可以熱醋_로洗之_고於驗傷處_에以
 葱椒_로同白梅_와和糟研爛_야捻作餅子_야火內煨
 令極熱_호先於屍身上_에用紙搭着了_고次以糟餅
 罨之_면其痕損_이必見_라○_圖僵屍皮肉傷痕
 隱伏者_는用糟五斤_야入麻黃末甘草末各三兩
 煮成粥候溫_야徧塗屍身_고掘地作坑_을如冬月

蒸罨法燒熱多潑酒醋昇屍置坑內絮薦
密盖別以淨水一鍋入燒酒二斤煮白布
二方俟屍軟擡至平明處細細拭淨其傷
即見

白帛僵乾고乾간瘁劑호시신이라白帛僵

이 죽어 시름이 오乾간瘁劑호시신이라白帛僵

라이몬져炭火화를 펴디시레와기리도며니비

될만타고우희열온되를펴디可가히炭과

상등게고물노베섞어저기젓게고屍시를

우희누이고仍야되로베頭面면과肢

體테를덤허다흙애다시炭火화로써펴들너

두루가게고다시되로베덤고다시물노베두

루썩려호時시스동안이면그屍시—몸과슬히

반드시부드러워너니보야호로可가히터운

초로베벗기고상쳐驗함흙곳에과와천초로베

白帛梅의를호가지로야糟조를엇거마라무

르누게야주집어벽을민드라불속에구어極

극히덥게고몬져屍시身신우희쇼히로베언

저부디티고버거糟조餅병으로베덤호면그痕

흔損손이반드시보느니라○僵屍시—皮

피肉육에傷상痕흔이숨어보디아닛는者자는
糟조五오斤근을써麻마黃황末말과甘甘草초
未말各각三삼兩兩을녀허달허粥죽을민드라
드스허기롤기드려너케모덱디야屍身신에두
루브르고싸흘파긋민돌기롤冬동月월에蒸증
餹엷흐는法법파긋티흐야불틸너덱게흐고酒
주醋조를만히뿌리고시신을드러긋안히노코
소음과돛츠로빅빅이덱고셔로링물一일鍋과
로버燒소酒주二이斤근을녀허白帛布포두조
각을달혀시신이부드럽기롤기드려드러平평

고고복은곳에니르러細세細세히베서가시면
그상체즉시보느니라

壞爛屍若避臭穢야不親臨면往往誤事라니 ○量
劑四至訖에用水衝去蛆蟲穢汚야皮膚이旣淨어
은方可驗오이不必用醋糟라니 ○頻令汲新水야澆
潑屍首四面라○毆傷處不至骨損則肉이緊貼
在骨上야用水衝激不去고指甲感之야方脫디肉
貼處에 有損卽見라니 ○被打或刃傷處는 皮膚이
作赤色深重고久而作青黑色야貼骨不壞고蟲不
能食라니

壞과爛^한호시^신이라^상호^야석^은거^시라^만일^臭취^穢에
 룬^避피^호야^親친^히臨^림티아^니호^면往^왕往^왕
 일^을그^릇티^느니라○四^스至^지를^자혀^귀록^호
 야^只唾^아물^노써^세려^蛆저^蟲충^과穢^에汚^오를
 업^시호^야갓^과슬^히이^의조^하디^거든^보야^호로
 可^가히^驗험^을꺼^시오^긋야^醋醋^조糟^조를^쓰디
 아^니호^면티^{니라}○조^새물^을길^리여^屍시^首슈
 四^스面^면에^시혀^언즈^라○敲^구傷^상處^처처^니 뼈
 손^상흠^애니^르디^아니^호면^슬히^든든^히부^터뼈
 우^희이^셔^손상^티아^니호^솔은^피란^호고^손상^호
^인슬^은긋^고든^호야^뼈에^부러^느니

라^물노^씨衝^충激^격호^야도^가디^아니^호고^물노^씨
 디^도슬^히뼈^에셔^러
 디^디아^니란^말이^라손^톱으로^感취^려셔^히단^말
 이^호야^사보^야호^로버^서디^디슬^부터^던디^손상^라
 호^거시^이셔^즉저^보느^니라○被^피打^타호^거나
 或^후刃^인傷^상호^곳은^皮피^肉육^이붉^은빛^치도
 디^기고^重등^호고^오라^매靑^청黑^흑色^색이^되야
 뼈^에부^터문^히디^아니^코버^리도^能능^히먹
 디^못호^느니라

補檢^骨濃^磨好^墨塗^骨上^候乾^하即^洗去^墨如^有損^處則^墨必^浸入^無損^處則^墨不^浸入^라○

本草綱目卷之九

四十一

用新綿補于骨上拂拭補遇損處補必牽惹綿起
 再看折處補其骨芒刺補向裏補是毆打折者
 骨折處補滯淤血補○補骨上被打處補即有
 紅色路微癢補骨斷處補其接續兩頭補各有血暈
 色補再以有痕骨補日中照看補如紅活補乃是
 生前被毆分明補骨上補若無血癢補縱有損折補
 乃成後痕補○

補 뼈를 검힘흠이라도 흔먹을 뒷게 마라 뼈우희
 바르고 머리기를 기드려 즉시 먹을 베스라 만일
 상흔곳이 이시면 먹이 반드시 저저 들고 상흔곳

이 업스면 먹이 저저 드디 아니 하느니라 ○ 새
 소음으로 써 뼈우희 다려 쓰스라 상흔곳을 만나
 면 반드시 소음을 무려 드려야 니려 내느니라 ○ 다시
 부러딘 뒤를 보라 그 뼈엿가식 補 뼈부러딘 곳에 반
 라 안흐로 옥어시면 補 안흐로 향흠이라 이느 補 毆구
 打하야 부러딘 거시니 뼈부러딘 곳에淤어血
 혈이 머무릿느니라 ○ 補 뼈우희 被피 打하야
 는 곳 붉은 줄 미히 피미 틈 거시 잇고 뼈흔허딘
 디는 그 마초아셔 니 이느 두숫치 각 각 血혈 暈은
 돈 빛치 잇느니라 다시 흔적 잇느 뼈로 뼈히 빛가 온

대비초여보아만일불고성성호면이생성前
전에被피毆구홈이分분明明호고빠우희만일血
혈癢음이업스면비룩상호야부러디미이시나
이에死스後후흔적이나라

開棺檢驗

凡發塚開棺檢驗。誠未應以人命。至

重。合驗屍傷。却緣埋有月日遠近。時有寒
暑不同。况人情。萬狀。所犯。各別。似難一
槩定論。今後。凡有人命。雖已安埋。亦合
開檢。庶望事有證驗。情無疑似。○開棺檢
得。皮肉。消化。骨殖。顯露。難以檢驗。自

來亦無檢骨定例。憑何。定執致命根因。若

照勘明白。將行凶人干連人。研窮磨問致命

根因。責各各招準實詞。理經久。已應

難開檢。徒憑招辭。成獄。亦難的。確。惟在臨時

善處。檢時。毋得施以刑威。朝家著

令。至嚴。而近多濫施。甚非法意。須要究轉查

究。得。其情。偽。切。勿。妄。施。杖。棍。刑。訊。及。杖。撞。等。刑

○先驗是墳。係何人地。高長濶尺寸若干。屍

屍在屋下或屋內殞者。對衆開土。驗得屍用

何物盛殯。棺漆席緣有無。○盜發人塚。或

塚何向。圍長濶多少。開土見板。或開棺見

屍。驗元着衣服物色。被賊偷與否。先

無憑檢驗屍 檢時宜說頭髮。褪落頭面。遍

身皮肉。並皆青黑。致皮壞爛。及被蛆蟲啣破骨

殖。顯露去處。○如皮肉。消化。宜說骸骨。

顯露。上下皮肉。並皆消化。只有些少未消化

筋肉。與骨殖相連。今來。委是無憑檢驗。

同溺水檢法未段兼用手揣捏上下。並無骨損去處。

○**補**路灰之屍。時或有之。既無親人來認。土

人。舉報。又恐惹事。往往暴露。深為不宜

。遇此等屍骸。先令地方。不許不報明。即

當捐俸銀一二兩。率領仵作。協同地方。相驗

有無傷痕。約略年紀。填註面貌衣服。如有携

帶行李財帛。公驗貯庫。以俟親人識認。隨

將捐去銀兩。買棺盛殮。且勿牢釘。仍埋標立

記號。

의빙야檢甘驗함홀거시업슨시신이라검함

홀애매맛당히頭두髮발이머서디고頭두面면

과遍身身신잇皮피肉육이아오로다靑靑黑黑

홀며갓치버서壞과爛란야시며밧蛆져蟲충

이무리부러져骨골殖식이顯현露로호곳은닐

으라○만일皮피肉육이늑잇거든맛당히닐○

되骸의骨골이顯현露로호고上상下하皮피肉
 육이아오로다누이시되다만些자少소누디아
 님힘줄과솔이骨골殖식으로더브러서르連련
 호것만이시니이저실노이의빙호야檢검驗驗
 흘꺼시업고^{법未}말端단과^{水俞}檢검^{法兼}검호
 야손으로셔上상下하를揣揣捏捏^{말만}저늘
 니아오로배손상호곳도업다호라○^金금히셔
 죽은죽음이새로或혹잇는니이의親친人인
 와알오리업고그싸사름이드러報보흘꺼시로
 되또일을니르혈사저허往왕往왕^{히暴}폭露로

호니김히맛당티아닌디라이러호屍시骸히를
 만나거든몬져地地方방으로호여금報보호음이
 분명티아닌거슨許히티말고즉시맛당히俸봉
 銀은一일二이兩兩을내야^作작을기느려
 地地方방과호가디로호야傷상痕흔이이시며
 업슴을슬퍼驗驗호디年年紀기를짐작호며面
 면貌모와衣의服복을메워기룩호고단일가졌
 는行행李니財지帛帛이잇거든공번히^{증인}을
^법법^이이^驗驗^함함^호호야庫고히너허^親親^人인^의의^기기^지지
 호야알기를기드리고조초내엇는銀은兩兩을

가려棺관을사담아殮럼호디아직곳게못박디
 말고仍^인야標표를뭇고記기號호를세우라
 免檢 賊徒殺人^은難同鬪毆殺次^니事主^一隨時告
 知兩隣社長^야看視在身傷痕^고指實陳告^티官
 司^一準理免檢^라○凡檢驗^에雖有血屬^이乞免檢
 亦須察其屍首^一有無元地所^고方可領狀^라
 檢^함을免^면함이라賊적盜도^라의殺살人인
 은鬪투毆구^야죽인것과^스티^기어려우니
 事主^주주^주새로조차兩隣^린隣^린과社사
 長^장長^장의게닐너알되야^{몸에}있는傷상痕흔
 長^장長^장의게닐너알되야^{몸에}있는傷상痕흔

을보고실상을^마르^터陳^진진^고고^고거든官관司
 一^법법리^를準^준하야^검검^험을免^면하이라○들
 잇檢^검驗^함에비록血^혈屬^속이이^선검^험을
 免^면스스로^목목^야동^기하야^디라^나쓰^호모
 름이그屍^시首^슈一^처엄^터히이^시며^엄스^를솔
 피고보야^호로可^가히^문장^을바^들디^니라
 覆檢官^이檢^驗을^依上^上施^行○^補覆^檢官^이或^恐
 前官怨恨^야不敢異同^야或因犯者富豪^야不肯開
 釋^야或觀望上官之批語^야以爲從違^야或描寫向
 來之成案^야以完已事^야一^倘有毫髮冤情^면其罪

增修無窮金言角一 五十九

항스스로 죽으며 죽기를 닦은 거슬 불히 분
변하야 자해히 괴록호디 或 후다 른違위 端
단이이서 잡아定명키어려온디 미이엇거
든 연유를 又 초아 베풀고 큰 不만 흠을 혐의
치 말

凡傷處 看其大小 量見分寸 又看幾處 一皆
可致命 只指定重要害一處致命 身死 ○聚
衆打人 最難定致命痕 如死人身上 有兩痕
皆可致命 此兩痕 若是一人下手 則無害
若是一人 則一人 償命 一人 不償命 須
於兩痕中 斟酌最重者 爲致命 須
看其傷處 處若大 則小 若小 則大 須看分寸

을 자혀 보고 또 보아 몇 곳이다 可가히 致티 命명
하얌 죽홀디라 고다 要요 害해 하얌 곳에 致티
命명 身身 死死 소 흠을 指지 定定 하야 귀등 하라 ○
증인을 모화사 죽인 거시 又 장 致티 命명 痕痕 을
定定 하기 어려우니 만일 死死 人인 의 身身 上上 상
에 兩兩 傷傷 흔이 이시디다 可가히 致티 命명 하얌
죽고 이 두 상흔이 만일 이 혼 사람의 손지음이
면 害해 로 음이 업거니와 두 상흔이 다 혼 사람의
음이면 만 말이라 一 萬일이 두 사람이 랑이면 一
일 人인 은 償償 命명 하고 一 日人인 은 償償 命명

增修無窮金言角一 五十九

을 못 흘이니 모름이 두 상흔 중등에 2 장 중등호

者 자를 斟 酌 작호야 致 리 命 명 을 삼으라

○ 檢 驗 이 非 徒 檢 傷 處 而 已 然 口 眼 閉 閉 外 手 脚

○ 奉 散 等 許 多 形 症 有 可 以 証 明 實 因 則 理 當 逐 錄

○ 勿 論 完 全 傷 損 中 而 近 來 外 檢 法 則 事 不 致 察

○ 於 屍 帳 名 目 之 中 而 全 字 混 錄 而 止 此 豈

○ 特 傷 處 外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古 人 作 法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人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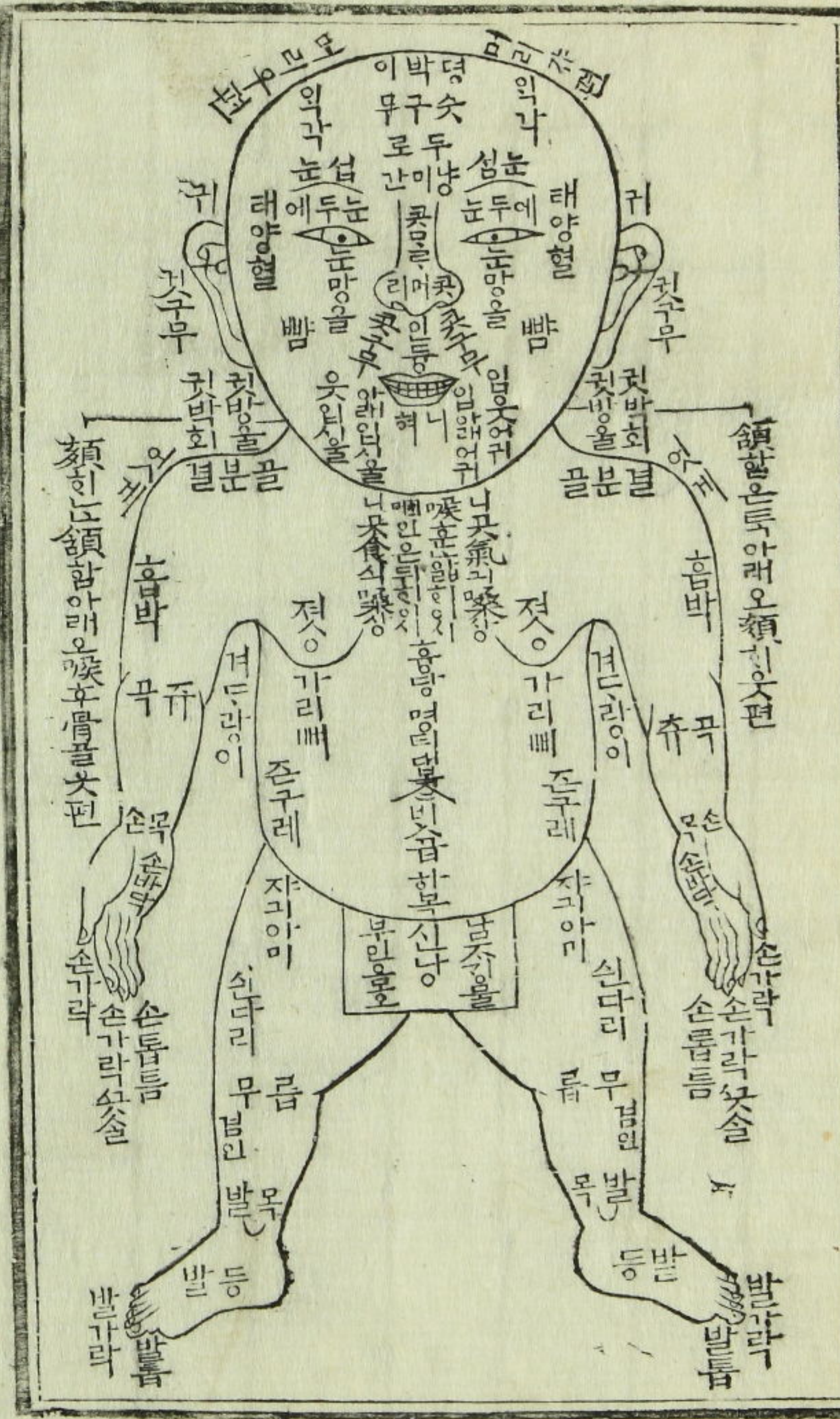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 不 檢 驗 之 意 耶 一 司 命 者 宜 致 詳 焉 此 豈

야 괴 록 흘 만 호 니 이 잇 디 빛 사 립 의 작 작 법 법
하 뜻 이 리 오 민 인 명 2 음 아 는 者 자 1 맛 당
히 不 세 흠 을 극
진 히 흘 띠 니 라

仰양면면



頂頂心심

百백會會 회 회 ○
속속청청 덩덩 박박 이

偏편左左 자자 偏편右右 우우 리리

가가 마마

百백會會 회 회 ○
속속청청 덩덩 박박 이

左左 자자 우우 偏편

顛顛신신 門門문문

百백會會 회 회 ○
속속청청 덩덩 박박 이

頭頭 두두 顛顛로로 顛顛신신 문문 아아 래래

명명

百백會會 회 회 ○
속속청청 덩덩 박박 이

額額 익익 角角각각 顛顛상상 이이 니니 래래 좌좌 자자 顛顛

兩兩旁旁 태태 陽陽 양양 穴穴혈혈 두두

右右 우우 나나 眉眉 미미 두두 눈눈

眉眉 미미 叢叢총총 임임 이이 니니 두두 눈눈

兩兩旁旁 眼眼안안 睛睛정정 瞳瞳동동 子子자자 兩兩旁旁 眼眼안안 胞胞포포 두두 멍멍 눈눈

兩兩旁旁 腮腮의의 頰頰협협

兩兩旁旁 眼眼안안 睛睛정정 瞳瞳동동 子子자자 兩兩旁旁 眼眼안안 胞胞포포 두두 멍멍 눈눈

兩兩旁旁 腮腮의의 頰頰협협

兩兩旁旁 眼眼안안 睛睛정정 瞳瞳동동 子子자자 兩兩旁旁 眼眼안안 胞胞포포 두두 멍멍 눈눈

兩兩旁旁 腮腮의의 頰頰협협

兩兩旁旁 眼眼안안 睛睛정정 瞳瞳동동 子子자자 兩兩旁旁 眼眼안안 胞胞포포 두두 멍멍 눈눈

兩兩旁旁 腮腮의의 頰頰협협

兩兩旁旁 眼眼안안 睛睛정정 瞳瞳동동 子子자자 兩兩旁旁 眼眼안안 胞胞포포 두두 멍멍 눈눈

首首 目目 參參 兵兵 瓦瓦 錄錄 參參 詳詳 一

六六 十十 二二

ノ長作無字金言角一

耳이垂슈 귀아래드리 운것○속칭

을 키방

鼻비準준 리 곳미

人인中중 입시울우히 오코아래

上상下하牙아齒치 속 칭

牙아는아금니 오齒치는압니

頷함頰히 턱아래○ 발은우히 오

頰히는아레니 다

食食氣기頰頰 상 상 상 상 상 상

又드니 食食 氣기 頰頰 상 상 상 상 상 상

六一二一

耳이竅교 무 것구

鼻비梁梁 리 곳미

鼻비竅교 무 곳구

上상下하唇순吻문 唇

문은입시울이 오 吻

舌설 어

咽인喉후 頰히아 후래이

함히이 서기 운을 통

兩兩血혈盆盆骨骨 플 곳

서음 식 을 삼 기 니 라

ノ長作無字金言角一

耳이垂슈 귀아래드리 운것○속칭

을 키방

鼻비準준 리 곳미

人인中중 입시울우히 오코아래

上상下하牙아齒치 속 칭

牙아는아금니 오齒치는압니

頷함頰히 턱아래○ 발은우히 오

頰히는아레니 다

食食氣기頰頰 상 상 상 상 상 상

又드니 食食 氣기 頰頰 상 상 상 상 상 상

六一二一

耳이竅교 무 것구

鼻비梁梁 리 곳미

鼻비竅교 무 곳구

上상下하唇순吻문 唇

문은입시울이 오 吻

舌설 어

咽인喉후 頰히아 후래이

함히이 서기 운을 통

兩兩血혈盆盆骨骨 플 곳

서음 식 을 삼 기 니 라

兩兩肩肩胛胛 두 잇

兩兩腋腋臑臑 지 협 사 이

○속칭 기

兩兩胸胸肌肌 축 폴 덕

伸신 하 는 곳 이 니

手手心심 손 심

伸신 하 는 곳 이 니

手手指지 락 손 가

伸신 하 는 곳 이 니

手手指지 甲 갑 縫 봉 손

伸신 하 는 곳 이 니

兩兩乳乳 유 젖 두

伸신 하 는 곳 이 니

胸胸膈膈 당 가 슴 이 래 당

伸신 하 는 곳 이 니

手手指지 肚 두 손 가 락

伸신 하 는 곳 이 니

六一二一

胸胸膈膈 당 가 슴 이 래 당

흥은 우 히 오

手手指지 肚 두 손 가 락

흥은 우 히 오

六十四卦

心坎 坎 胸 腹 肚 腹

복우속

兩脇 脇 肋 胛 肋

臍 肚 肚 下 腹 肚 腹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六十四卦

肚 腹 肚 腹 心 坎 肚 腹

복

兩脇 脇 肋 胛 肋

臍 肚 肚 下 腹 肚 腹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兩脇 脇 肋 胛 肋

曾文無克錄彥一

兩脚 脚 面 脚 面

足 脚 脚 面 脚 面

足 脚 脚 面 脚 面

足 脚 脚 面 脚 面

六十四卦

일흠두어甘甘結結함을取취하라 범인인某
모干간犯人인某모看간證證人인某모地
디鄰린人인某모主슈首首某모屍시親친某
모件오件작작行행人인某모를이아래右우
件件우의列列名명하야일흠두이라右우
件件이

右件前項致命根因을凡有脫漏不實符同捏
合_하增減屍傷_은이情願甘伏罪責無辭_하야保
結是實_하라

右우件件前前項項항_말상_항이_란致_티命_명호_根
근因인을를_릿脫_탈漏_루니_초기_록디아_하야
實_실답_디아_니하_며단_말이_라符_부同_동이_들

서_르부_합하_야사_며合_합하_며거_주말_노사_단
단_말이_라이_屍시_의상_쳐를_더하_며덜_흠이_잇거_든情_정
願_원으로_로罪_죄責_척을_甘甘_伏복_하고_말습_이
업_스리_라하_야甘_결에_保보_두어_이實_실케_하
라_검시_관리_그甘_결이_탁
실_흠을_보두_단말_이라

某年某月某日司吏某着押

首領官某着押

檢屍官某着押

某_모年_년某_모月_월某_모日_일司_사吏_리某_모
着_탁押_압

首領官령官관某모着착押압

檢屍검屍시官관正정官관某모着착

押압

若若當場야認定정行행凶凶致命치事情사明白명者자則즉於어屍

帳상上에明명白백標표寫寫行행凶凶正정犯범某모人인者자則즉於어屍

事사情정疑의似사首수從從未미分분者자標표寫寫被被告고行행凶凶人

이라 畫화字자

만일만當당場장行행凶凶致치命명者자

事사情정이 明명白백히 寫寫아 定정명 者자

가 屍시帳상上에 明명白백히 行행凶凶

홍은 正정犯범某모人인 이라 標표寫寫야

일 寫寫두 이고 事사情정이 疑의似사고 首

小소와 從從宗종을 分분변 리 不불는 者자는 被被피 告

고 行행凶凶人인 이라 標표寫寫야 일

寫寫두 이라

關文式

具구銜하某모年년月월日일時에 準준某모人인牒다訴소 卽즉引인司시吏사某

人인 仵우作작某모人인等등 起기程정前전去하 至지某모日일時에 到도某모縣

某모里리地지名명某모色색人인屍시首수停정置지處처 呼호集집合합衆중人인等등

當당職직 躬공親친監감視시 對대衆중眼안同동 依의例례用용法법物물 自

上至下하 翻轉하 一一仔細分明定驗得하 就於屍
帳上에 逐一比對하 標寫하 取作某人의 並無增
減不實移易輕重하 甘結文狀하 並責屍親某人
行凶某人及應叅檢人等의 各各證驗執結文狀하
定驗得某人屍首致命根因이 委係端的하 將屍首
遮蓋灰封하 責里正等用心看管하 無致虫鼠傷
殘하 合叅檢人等을 差人管領하 移關覆檢官云云
이라

關關文문구식이라 상사에 관
유함이라

직함을조고某모年日月日일時시에某모

人인의牒를訴소함을빙준하야즉시司吏리
某모人인파件오작작某모人인等등을위인하
야갈려나나가某모日일時시에니르러某모
縣현某모里리地디名명엇아모명식사름의屍
시首슈머무러둔곳에니르러합당히참예홀사
름들을불너모도아當當職직검관
일컷는말이라이
몸소親친히監監하야보오뒤여러사름을對對
하야眼안同동하야법례대로法법物물을써우
부러아래까지翻번轉轉하야낫낫치仔細
세
하고分分明명히定定驗驗하야즉시屍시帳帳

曹一因殺人投狀하移文京兆하이京兆一先令
當部로初檢하京兆郎이覆檢하若三檢則刑曹
草記舉行라이니

부 初초檢검을只咨에申신報보상검시문장을
라이기를기드리디못하고急급速속히사름

을시겨附부近근에干干碍에已親親屬속이
碍애로온사름이라아닌官官司司의게行

行移이하야請청하야와覆복檢검하고初초
檢검官官관이회회避피다말란말이라보하라

○ **부** 覆복檢검官官관이檢검驗험하느等等項

항어러가디을또호이법례대로호디某모年
년月월日일에某모處처公公文문을빙준하

야某모時시에글려났노라云云云하라○
부 京京은刑刑曹曹一사름죽엇다하느소지

京京을因인하야京京兆兆에移이文문하야
든京京兆兆一문저當當部부로하여부初초

檢檢하고京京兆兆조랑관이覆복檢검호디만
일삼삼檢검을하면刑刑曹曹一草초記記하

고舉거行行하느니라

增修無冤錄諺解卷之一

增修無冤錄諺解卷之二

條例

丘母과 법례라

胎傷歿

婦人。有胎孕不明致死者_은。檢_은驗_은後_에。令_은收_은生_은婆_로。驗_은腹_內。若_은有_은胎_孕。心_下至_은臍_肚。以_은手_拍之_면。堅_如鐵_石。如_은無_은胎_孕。即_은軟_하。又_은勒_은收_은生_은婆_가。定_은驗_은產_門內_에。有_은無_은他_은物_이。產_門內_에。血_水惡_物。流_은出_은。驗_은是_은產_子不_은下_은。致_은命_은身_은歿_하。當_은用_은銀_釵入_은產_門試_은看_은。毒_藥墮_은胎_致命_은身_은歿_하。當_은用_은銀_釵入_은產_門試_은看_은。

增修無冤錄諺解卷之二

一一

胎傷 胎死 胎傷 胎死 胎傷 胎死

婦人인 이胎死孕이 이분명티 못호고致티死
 소호者자 이거든檢驗함호後 후에收育生
 生 婆과 히 산시 거는늘 로호여 母腹부內內 胎驗
 함호라 만일胎死孕이 이시면心심下하로臍
 肚肚에너르히손으로버두드티면드드기鐵
 針石針又고 만일업스면곳무루기收育生生
 婆과를시거産産門문內內에他物物이이시
 며업슴을定驗함호라 ○産産門문에血혈水
 슈와惡物物이흘러나면驗함호에이노子不

를産産호다가나티못호고致티命명호야身身
 死스호이어나或후이不식비미이심에毒毒藥
 藥을배胎死를씨르려致티命명호야身身死스
 함이니맛당히銀은釵자를배産産門문에녀허
 시함호야보라 중등毒毒門문에
 驗小兒胞胎에令收生婆로定驗月數며定成人形
 或未成形야責狀附案라 ○見一在母腹中야
 被驚後死胎下者는 胞衣紫黑色호血瘡軟弱호生
 下腹外死者는 其屍一淡紅赤야無紫黑色호胞衣
 白호若月未足者는 其身體에必有生未全處야仍

集產婆驗之라○胎子落者를按五臟論라一月은
 如珠露고二月은如桃花고三月은男女一分고四
 月은形像이具고五月은筋骨이成고六月은毛髮
 生고十月은滿足나若未成形像은只作血肉
 一片或一塊호若經日久壞爛면多化爲惡水라
 若墮胎已成形像者는謂頭腦口眼耳鼻手脚指甲
 等全者이亦有臍帶之類라○有孕婦一被殺이
 或因產子不下身成屍를經埋地窖면因地水火
 風이吹屍首脹滿야骨節縫이開야逐出腹內胎孩
 一孕婦는殞殮入棺或一孕婦는覆檢之
 後이並未經埋窖면胎亦自出라

小兒의胞포胎티를驗함흡음에收수生성婆
 파로하여음月월數수를定정驗함하여人인形
 형이일웠거나或후일우디못함을定정하야문
 장에다짐바다문안에부티라○見은一母모腹
 中중에이셔놀란後후에死胎티난者者
 胞포衣의검붉은며검은빛치오피미티고軟
 연弱약하고사라비박거나셔죽은者者는그屍
 시淡담히붉거나검붉어淡담히검붉검은빛
 치업고胞포衣의희디만일들어足족디못호者
 者는그身身體에어반드시삼기미온전티못호

곳이잇는니仍^인잉^잉야^야産^산婆^파과를모^모화^화증^증험^험하
 라○胎^태티^티子^자디^디운^운者^자를五^오臟^장論^론에按^按
 안^안하^하니一^일月^월에^에는珠^주露^로로^로이^이슬^슬이^이동^동골^골게
 又^우고二^이月^월에^에는桃^도花^화又^우고三^삼月^월에^에
 는男^남女^녀一^일호^호이고四^사月^월에^에는形^형像^상
 상^상이又^우초^초이고五^오月^월에^에는^는힘^힘줄^줄과^과뼈^뼈일^일고六^육
 륙^륙月^월에^에는毛^모髮^발이^이나고十^십月^월에^에는滿^만
 만^만足^족족^족하^하니만^만일^일形^형像^상이^이일^일우^우디^디못^못하^하거
 든다만血^혈肉^육육^육조^조각^각이^이어^어나^나或^혹후^후하^하던^던이^이되
 더^더만^만일^일날^날이^이오^오라^라를^를디^디내^내야^야상^상하^하면^면만^만히^히산^산화^화하^하

야惡^악의水^수一^일되^되는^는니^니라^라만^만일^일셔^셔러^러던^던胎^태티^티이^이의
 形^형像^상이^이일^일운^운者^자는頭^두腦^노와^와口^구眼^안
 과^과耳^이鼻^비와^와手^수脚^각과^과指^지甲^갑等^등이^이온
 全^전하^하者^자를^를닐^닐음^음이^이오^오또^또하^하臍^제帶^대이^이라^라의^의類^류
 류^류一^일잇^잇는^는니^니라^라○有^유孕^부婦^부一^일죽^죽임^임을^을넘^넘거
 나^나或^혹후^후조^조식^식노^노타^타가^가나^나티^티못^못하^하고^고죽^죽은^은시^시신^신을^을地^지
 다^다窄^좁이^이라^라에^에못^못기^기를^를디^디내^내면^면싸^싸히^히水^수火^화風^풍
 풍^풍이^이屍^시首^수를^를부^부러^러脹^창滿^만한^한息^식을^을因^인하^하야
 骨^골節^절縫^봉도^도인^인곳^곳이^이라^라이^이열^열니^니여^여腹^복內^내
 너^너엇^엇胎^태티^티孩^하兒^이를^를조^조차^차내^내는^는니^니라^라
 殯^인빈^빈檢^검함^함야^야

增修本草卷之二

對衆解下_야仍扛屍於露明處_고方解脫自縊套繩_고
 於通量長若干尺寸_야量圍喉下套繩圍長若干_고
 自項下交圍_로量耳後髮際起處濶狹橫斜長短_고
 然後_에依法檢驗_라○凡檢自縊人_에先問元申人_이
 其身_이何色目人_이見時早晚_이曾與不_曾
 曾解下_야救應_야如曾解下_야救應_은即問解下_에有_氣
 氣脉無氣脉_야解下_에約多少時_야申官時早晚_고
 如有人識認_은即問自縊人_이年若干_야作何_{經紀}
 家內_에有甚人_이却因何在此間自縊_고若_是
 奴僕_은先問雇主_야討契書辨驗_디仍看契上

有無親戚_라○若經泥雨_은須看_은死人_이赤脚_或
 着鞋_와其踏_上處_에有無印_下脚跡_라

勒_은縊_은야 죽은_은기시_라 勒_은은_은미_고다
 縊_은기시_라 縊_은기시_라

를_은잇_은自_은縊_은인_은屍_시를_은검_은험_은홈_에몬_은져_은모_은롬_이
 므_은슴_은地_디分_은분_은면_이라_면이_면며_며므_은슴_은街_가巷_항이_면며
 므_은슴_은사_의룸_의집_에이_심을_은보_며엇_더흐_사룸_이보
 니_本本_은人_인인_은룸_이라_시이_스스_로므_은스_기슬_빠므
 슴_은곳_에결_터시_디或_혹十_십字_字單_단繫_계라_와
 死_死人_人積_積頭_頭套_套로_로미_얏거나_或후_후項_項下_下

에活활積積套套로頭頭活활套套로라라를作作작작하얏던고하
 고단단과와소도외외할로로고단아래되엇는니라라문드님은바웃시서며
 음을驗驗할고시신四소至處처에므슴物物
 되면거사표표이물자히며느츠므슴곳을향하야
 시며등은므슴곳을向向향하야시며그歿歿人인
 이므슴物物을버드되고을낫던고고우흐로
 머리돌닌거시리얏는디노결된와相相상去거
 언마尺척寸촌임을자히며아래발아래로사하
 니르히相相상去거언마尺척寸촌임을자히디
 或或후목인바곳이리루는즈나도호보아머리우

희노홀든라건곳으로아래썬곳에니르히相
 상去거언마尺척寸촌임을아오로자히고야
 든곳기느스면노민디부터사하니르
 히상개언마스음을모도자히미라여러사름
 을對對되하야푸러느리와仍仍잉하야屍屍시롤한디
 복은곳에드러노코보야흐로自自縊縊의호套로
 繩繩승을푸러벗겨내야기리언마尺척寸촌임을
 通通통하야자히며목의얏던노온기리喉후下하
 에들니인套로繩승이들윤기리언마히물자히
 고목에감기엇던기리項項항下하에마조돈디로
 만속로자히미라
 부터耳이後후髮발際제에올나간디스지노익

버서시며或후신을신어심과그드디고오른곳
에박히인발자최이시며업슴을보라

自縊

有活套頭이 灰套頭이 單繫十字이

纏繞縊_하 須看灰人의 脚踏甚物고 入頭在繩套

內_하 須垂得繩套 寬入頭이 方是의 須有踏物

上縊處跡由이 自縊은 須高八尺以上이 兩

脚이 懸虛고 所踏物의 須倍高如懸虛處고 項痕이

不匣고 勿論楣樑枋桁고 塵土 多衣亂이 方是

如只有一路의 無塵亂이 不是自縊이 나

스스로縊이 야 죽은거시라 活할套도 頭두!

어나 灰套 頭두 어나 單單 繫 十 十 字 不

어나 纏 繞 縊 活套 頭두 어나 單單 繫 十 十 字 不

活套 頭두 어나 單單 繫 十 十 字 不

死套 頭두 어나 單單 繫 十 十 字 不

이 잇는 나 모롬이 灰人인 이 발노 무어 슬드디

고 머리롤 너 허繩승套도 안히이 셋는 고 보라 모

롬이繩승套도 드리 윗기 롤덕이 야 머리롤

드러 보낼 만야 사보야 호로 올코 死套도

물리 논티 못 할 개시 나 모롬이 物을 을 드디고

을 나 목민터 힌 자 최 잇는 나 自縊이 호디

느모름이 좁히어 팔尺 척이 이상이나 하야 사
두발이 들니여 허허하고 드던 바 물이 모름이
좁히懸懸 허허處 처 등너여 허허에 서 배비나 하
고목에 흔적이 도디아 벗고 노긋치너러서 우흐
도라가 디아楣기와樑과枋과桁 다 짐우
넷나 남을勿을論론하고塵진土토 만히袞곤
기러난 잡도 허어즈 하야시면보야흐로올코안일
亂亂 잡단말이라즈 하야시면보야흐로올코안일
다만흐길만잇고 진토우희노길 벗년자최호 몬
쥐곤란함이업스면이 자縊帊호기시 아니
라

○活套成套縊者 脚到地也 並跪地也 俱可成也
라니

活套套로 하나나 成套套로 縊帊호호者 자는 발
이싸히다 하고 아오로 싸히사러도 싸히다 하러
말이다 가히죽느니라

○單繫十字는懸空사 方可成 脚尖이 稍到地
면 亦不死 先自用繩帶야 自繫項上後
에 自以手로 繫高處나 須是先看上頭繫處塵土
及成人이 踏甚處物라 自以手로 攀繫得上向繩頭
着사 方是 若是上面繫繩頭處 或高或大

手不能攀及不能上則是別人吊起라니更看所繫處
物伸縮라하須是頭墜下하去上頭繫處一尺以
上하方是若頭緊抵上頭비定是別人吊
起라니

單單繫계十字字字不느응응에 둘러사보야흐로
可가히죽을거시오발긔치잠간싸히니르러시
면또호죽디아니하느니라歎々人인이몬져스
스로노히나씩로베스스로목우희민後후에스
스로손으로베놓흔디미느니모름이이몬져上
상頭두上上方面이관할이니들보히
나므슴나모에노민곳이라에미엇는

兜塵고토토진토로미던흔적
와밋歎々人인이
어디와므슴거슬드디엇던고보라스스로손으
로베上上向向향머리우희고초
어미엮즈하야사보야흐로올코만일이상상面
면에繩繩頭頭두민곳이或혹놓거나或혹크거나
하야손이능능히만디디못하며能능히오르디
못하얌즈하면이느다른사름의미야둔거시너
라다시민거시퍼이며주리허심을보라모름이
이머리드러워느려녀웃편민곳에서쓰기호자
이이상이라사보야흐로올코민일이머리上

상頭 두에緊히 다하시면定닝코이다른사람
이미야든거시니라

○纏繞繫는 是 人의 先將繩帶야 纏繞項上兩遭
고 自踏高야 繫在上面고 垂身致死야 或是先繫
繩帶在樑棟或樹枝上야 雙積垂下고 踏高入頭在
積內고 更纏過一兩遭면 其痕이 成兩路야 上一路
는 纏過耳後야 斜入髮際고 下一路는 平遶項야
檢其相疊與分開處야 作兩截야 量盡取頭了야 畫
取樣子고 更將繞繫處繩帶야 比並濶狹야
纏繞繫는 이 人인 이 몬져 노히나서

를 가져 목우희 두 돌림을 감아 두루고 스스스로
흔디를 드디여 上表面엔 미야 두고 몸을 드리
위致되 死스야 갓거나 或 후이 노히나 석를 들보
히나 或 후나 모가지 우희 몬져 미야 雙상積케 두
숫츠로 베풀어 희미 면질로 雙상積케 되어 그 노
양又 두 나라 ○積케는 고히니 호고히 노히 두 줄
이 雙상積케라 積를 드리워 너리 티고 溜흔디를 드
고 머리를 너허積케 안히 두고 다시 호두벌 돌림
을 감아 시면 그 흔적이 두 길히 되디 우호로 호길
은 귀 뒤 호로 감겨 디나 빗기 髮際 제 々 지드러
갓고 아래 호로 호길은 平평히 목에 돌넷느니 그 相

상疊럼^호며다^호只分^호分開^호기^호호^호곳을^호 그^호노^호히^호포^호딛^호
 파갈^호나^호여^호도^호檢^호검^호호^호디^호兩^호양^호截^호절^호 말^호에^호내^호단^호을^호민^호
 〇라^호자^호히^호기^호를^호뭉^호고^호뿔^호출^호뿔^호취^호홈^호애^호樣^호양^호子^호下^호양^호년^호
 이^호를^호그^호리^호고^호 노^호히^호나^호석^호로^호목^호에^호감^호앗^호던^호흔^호적^호이^호相^호
 가^호져^호야^호각^호각^호자^호히^호고^호 상^호疊^호럼^호호^호며^호수^호분^호開^호기^호호^호곳을^호들^호에^호
 니^호리^호였^호던^호노^호히^호나^호석^호로^호가^호져^호넙^호으며^호좁^호음을^호견^호조^호
 아^호다^호히^호라^호 여^호좁^호음^호이^호라^호

〇用繩帶索帛^호自縊者^호는^호繫縛處^호！交^호至^호左右耳^호
 後^호深^호紫^호色^호이^호或^호黑^호瘀^호色^호나^호어^호或^호作^호黑^호瘀^호跡^호고^호眼^호合^호
 고^호唇^호口^호一^호黑^호고^호唇^호開^호手^호握^호齒^호露^호라^호니^호〇自縊在^호喉^호上^호則^호

口閉^호牙^호關^호緊^호舌^호抵^호齒^호고^호喉^호下^호則^호口^호開^호舌^호
 出^호二^호分^호或^호三^호分^호고^호口^호吻^호及^호胸^호前^호有^호涎^호沫^호滴^호고^호大^호拇^호
 指^호兩^호脚^호尖^호直^호垂^호下^호腿^호上^호有^호血^호癢^호如^호火^호灸^호
 斑^호痕^호肚^호下^호及^호小^호腹^호皆^호墜^호下^호青^호黑^호色^호이^호大^호小^호便^호
 自^호出^호面^호帶^호紫^호赤^호色^호이^호니^호〇大^호腸^호頭^호에^호或^호有^호一^호兩^호
 點^호血^호이^호니^호〇結^호締^호在^호喉^호下^호前^호面^호痕^호分^호數^호一^호較^호深^호이^호
 라^호〇縊^호痕^호直^호至^호左^호右^호耳^호後^호髮^호際^호橫^호長^호九^호寸^호以^호
 上^호至^호一^호尺^호以^호來^호〇低^호處^호如^호床^호檔^호船^호倉^호火^호爐^호는^호
 須^호高^호二^호三^호尺^호亦^호可^호縊^호死^호身^호卧^호其^호下^호或^호側^호或^호覆^호
 側^호卧^호其^호痕^호偏^호斜^호起^호橫^호喉^호下^호覆^호卧^호其^호痕^호

握^고臀後^에 有糞出^고 左右手內^에 多是把自繫物
 色^호 至繫緊^라 死後^에 亦只在手內^에 須量兩手拳
 相去幾尺寸^라 ○曾被救解而死者^는 其屍^一 肚脹
 多口不咬舌^고 臀後^에 無糞^라
 스스로 졸라 죽은 거시라 ^{병들을 안 하야 스스로}
 라 그屍시 一 두눈이 감기고 입시 울이 열녀니
 드러나고 혀를 무러나옴이 一 일 분호 一 이
 分분 에 나르고 슬비치누르고 열골이 여외여과
 려고고 두손이 움쥐엿고 臀後 후에 糞분 나옴
 이 잇고 左 右 手 스 안히면 히이 스스로 된거

슬^민히라^노 잡아시디미 緊^고 하기에 나르디라 죽
 은後 후에도 死호은 직손 안히잇는니 모름이 두
 손주머진 相상 去기 ^{민 것 잡은 두} 一 언마尺척寸
 촌을 자히라 ○ 일즉 救구 하야 풀기 繩 남고 죽은
 者 자는 그屍시 一 肚 두 一 脹 팽호고 입에 혀를 무
 디아닌 거시 만코 臀 後 후에 糞 분 이 업는니라
被^라人^라勒^라死^라 項下索子 一 交過^고 并手指甲^에 抓損^이
 ○本屍 一 口開眼瞪^고 項上勒痕^에 黑色^이 食氣
 槩^이 塌^고 項痕^에 交匝^면 委是被人勒死^라 一 一 ○被
 人打損勒死者^는 被勒處喉下黑跡^에 只可六七寸

曾參無色錄 卷之二 十九

以來^오卽不至項後^고臀後^에糞出多^고被人勒^고死
 者^는口眼^이開^고兩拳^이散^고頭髻寬^고喉下黑痕
 週圍一尺以來^라○檢項索纏繞過度數^다多是
 於項後當正^이或偏左右繫定^되須有繫不盡垂
 頭處^라○其屍^이合面地^면爲被勒時爭命^야
 是捺撲得^라頭髮或髻^이散慢^고或沿身上^에有磕
 擦痕^라○被人隔物^이或窗櫺或林木之類^에勒
 死^를爲作自縊則繩不交^고喉下痕^이多平過^되却
 極深^고黑濛色^이亦不起於耳後髮際^라○^補勒處^에
 交者^되唯^로隔^나○絞勒喉下死者^는結締^이交在^死
 物則不交^라

人項後^고兩手^이不垂下^고縱垂下^나亦不直^고或
 把衫襟擗着^면卽喉下^에有衣衫領痕跡黑色^라
 是要害處^라氣悶身死^라

님의게 줄니여 죽은 거시라 목 아래 소박수 자
 서르디나 갓고 아오로 손톱이 허위여 상손^은안
 느니라 ○本본屍시^이 입을 버리고 눈을 직시^고
 고 목우희민흔적^이 검은 빗치오 食^은食氣^가 嚙^은상
 이 띠디고 목에 흔적^이 마조도라시면 실노이^님
 의게勒^은흔적을 넘어 죽은 거시^{니라} ^{별안}식^에저
 라^오고 목에 흔적^이도 ○님의까마자 상^고고 줄
 라^가오고 목에 흔적^이도 ○님의까마자 상^고고 줄

增修無窮錄卷之二

二

니여죽은者자느被_피勒_를處_처喉_후下_하에검
 은자최다만可_가히六_륙七_칠寸_寸손즈음이오
 項_항後_후후에니르디아니고
고로項은흐적이지니라
 는릿디못흐얀니라
 臀_둔後_후후에糞_분나옴
 이만코사_사룸의_의骨_골를_를넘어죽은者_者자느
는이라
 口_구眼_안이열니고두주먹이퍼디고상
 되누어디고숨통아래검은흔적이週_주圍_위一
 일尺_척즈음이니라○목에노감아들더긴度_도
 數_수수말이_말라_라를_를檢_검함_함이라만히이項_항後_후후에당
 등_등흐얏거나或_혹후_후치_치위_위조_조자_자右_우우에_에미_미야_야시_시디_디모

룸이_이리고_고盡_진진_진티아_아녀_녀뺏_뺏출_출드_드리_리운_운거_거시_시이_이실_실디
 니_니라_라
뺏치고나
 ○그_그屍_시시_시합_합面_면면_면으로_{으로}싸_싸히
 누_누어_어시_시면_면목_목의_의일_일쇄_쇄에_에목_목숨_숨을_을드_드로_로아_아이_이揉_유유_유撲_撲
박잇_잇단_단말_말이라_라호_호디_디라_라머_머리_리터_터려_려과_과或_혹후_후상_상되_되호_호
 터_터디_디며_며누_누어_어디_디고_고或_혹후_후身_신신_신上_상상_상애_애쓰_쓰라_라가_가며_며다
 될_될니_니고_고문_문타_타인_인흔_흔적_적이_이스_스리_리니_니라_라○사_사룸_룸의_의게
 物_물들_들을_을隔_격격_격히_히고_고민_민거_거시_시라_라다_다호_호인_인거_거시_시或_혹후_후窓_窓
 窗_창櫃_櫃
창櫃_櫃라_라이_이나_나或_혹후_후林_림림_림木_목木_목類_류류_류애_애줄_줄라_라죽
 인_인거_거슬_슬거_거죽_죽自_自自_自繪_획획_획을_을삼_삼으면_면노_노히_히마_마조_조지_지나
 가_가디_디아_아넷_넷고_고
物을隔격히고압하는흔적이갑고뒤히는

增補無窮金言角二

二十一

라 ○有用火篋ハク烙成痕ハク但紅色ハク或焦赤ハク帶濕ハク
不乾ハク라

늪의게죽임늪은거슬거죽自ハク縊ハク或ハク다作작
흠이라티고勒ハク류ハク야죽임을늪은者ハク자느口ハク구
眼안이만히열니고손이후터디고상퇴느고喉
후下하에血혈脉ハク맥이行ハク행티못ハク논디라痕흔
跡적이엇고淡담ハク야피미린검은자최업고혜
나오디아니ハク고또호니에다티느아니코項항
上上肉肉우애손톱흔적이잇고身신上上에要요
害해致티命命잇傷傷損손호곳이잇느니라○

주먹맛고太이고毆ハク구打타ハク야죽임을늪은後
후에목미야느라결린者ハク자느口구眼안이만히
열니고손이후터디고상퇴느고身신上上에要
요害해잇傷傷損손이잇고및喉후下하에미야
드랏느자최잇고숨통아래피미린검은자최업
고혜나오기아니ハク고또호니에다티도아니코
민흔적이비록김허갓치드러가시나靑靑紫紫
赤赤色色이업고다만아흰흔적이니라○火火
篋ハク에프른대빈허를불
면거죽은후에숨통아래를지저다만紅紅色色이

어나或후트고북으디저음을씩엇고므르디아
니하니라

移自縊屍

或外人於家中自縊其主人
避臭穢及檢驗於移屍出外而掛者

移屍弔掛舊痕이移動야致有兩痕舊痕은紫

赤有血瘡고移動은只白色無血瘡라○先以杖

子於所繫繩索上輕輕敲야如緊直면乃是

或寬慢면即是移屍라

自下縊의屍시를옴기미라或후外의人
집안히셔스

로목미야드라시면그主人인이臭穢에와

및檢김驗힘을避피하러야屍시를옴기바

는거시라屍시를옴겨드라갈어시면넋흔적

옴기여두흔적이잇기에닐위디넛흔적은김북

고북어피미림이잇고옴긴거스다만힐넛치오

피미림이업느니라○몬져막대로베미얏는노

우희輕輕輕輕히려보아만일드드하고곳곳하

면이에올코屍시를옴기지或후덕덕하고죽으

면곳이옴긴죽음이니라縊의야죽어시면그

음이변죽고주
리헛느니라

才堪值無幾金言角二

二二四

